

# 神人調化的 新世紀的 意義

林 泳 暢 \*

## 目 次

머리말	2. 인간에게 내재한 신인관계
I. 신명(神明)의 정의(定義)	3. 인간에게 미치는 신의 영향력
1. 3계의 제신(諸神)	IV. 조화(調化)의 정신과 실천
2. 인간 자체의 내재신(內在神)	1. 조(調)와 화(化)의 의미와 작용
3. 인간 사후의 신격위상(神格位相)	2. 조화적 신앙과 실천
II. 인간의 위상(位相)	3. 신인조화의 정체성 확립
1. 자연과학적 인간상(人間相)	V. 신인조화의 21세기적 의의
2. 정신적 인간상(人間相)	1. 21세기와 신인조화사상
3. 인간의 선천과 후천	2. 한민족의 사상적 기초
III. 신과 인간의 상관관계	3. 인류 정신문화의 기초
1. 음양합덕의 원리적 관점	맺는말

## 머 리 말

대순진리회의 종지(宗旨)를 시리즈로 연구 논의하는 두 번째가 종지의 차례대로 신인조화(神人調化)가 된다.

이 신인조화란 말을 처음 들으면 뭔지 몰라서 모호한 가운데서 그저 신과 인간의 조화(調和) 곧 harmony를 이룬다는 것쯤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 전해사 교수

이 종지를 설정한 정산(鼎山) 도주는 이런 단순하게 가벼운 뜻이 아닌 종교 신앙적 깊은 뜻으로 설정하였을 것이니 감히 함부로 용喙(容喙)하기 어려운 오의(奧義)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 짚고 넘어 갈 것은 비단 오늘 이 신인조화에 대한 논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적 사실(史實)이나 또 교의에 대해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연구자의 경우에도 대개는 그 기술된 원의(原意)에 접근하지는 않고 문자에만 매어서 허득거리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송대(宋代)에 유행하던 훈고(訓詁 또는 訓故)학적으로 해석하는 언석(言釋)에만 치중하여 이석(理釋)으로 하는 의리학(義理學)적 해석을 포기하게 되는 병폐에 빠지고 있는 혐(嫌)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 종지의 음양합덕이나 금회(今回)에 논의하는 신인조화, 또 다음에 계속될 해원상생, 도통진경이 그것을 종지로 설정한 도주 곧 옥황상제의 근본 뜻이 무엇이었던가를 살피는 것이 주목적이 되고 문자의 훈고적인 연구는 그 진실된 본의를 찾아 얻는 실마리가 될 뿐임을 느끼는 것이다.

사실 언어나 문자니 한 것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속뜻을 과연 얼마나 표현하는 것일까 하는 회의가 다시 생기는 것이니 8만 4천법문을 남겼다는 석가모니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말이 ‘四十九年 一字不說(49년 동안 한글자도 설하지 않았다)’<sup>1)</sup>이라는 것이었으니 따져보면 언어나 문자로 표현된 것은 화자(話者)의 본의(本意)의 한방편뿐이라고 해야만 될 것이다.

필자도 여기서 문자로서 속에 있는 의사를 발표하고 있지마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속뜻을 아는체하는 문자 때문에 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하며 그 무슨 문자로서 아는 체하는 것이 도로 진실된 뜻을 차단해 말아 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가 저어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다.

여기에 좀 유머러스한 고담(古談) - 유식한체 문자 좀 안다고 하던 고루한 옛선비의 이야기를 소개해 본다.

홀아버가 된 장인을 모시고 사는 젊은 선비가 큰 변을 당했다. 범이 와

1) 4권 능가경 제3권

서 장인을 물고 간 것이다. 젊은 선비 당황해서 (아무리 급해도 유식하게 해야 된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는데

“遠山 虎狼이 近村來하여 呑之丈人을 拉去하니 有銃者는 持銃하고 有槍者는 持槍하여 速速急來하라”고 하기를 여러번 해도 어려운 문자 모르는 동네 사람은 꿈쩍도 않고 장인은 범에게 잡아 먹히고 말았다.

위의 말뜻은 “먼 산의 호랑이가 가까운 마을에 와서 우리 장인을 잡아 갔으니 총이 있는 사람은 총을 가지고 창이 있는 사람은 창을 가지고 빨리빨리 급히 나오라”는 것이니 이 어려운 말을 동네 사람이 알 턱이 없었다.

이에 화가 솟은 선비가 이 사실을 관가에 소지(所志)<sup>2)</sup>로 올렸는데 고을원이 선비를 출두시켜 사실을 들어 보고는 “이 사람이 장인이 범에게 물려 갔으니 살려달라고 예삿말로 하면 될 것을 그 어려운 문자를 늘어 놓아서 사람들이 알아 먹을 수가 있느냐?”하고 꾸짖으니 이 선비의 대답이 또 걸작이었다.

“是然矣라 此後 不用文字하오리다.”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는 문자를 쓰지 않겠습니다)하는 것이다.

화가 오른 원이 “안되겠다. 저 놈을 얹어 놓고 불기를 쳐라”고 하니 그대로 얹어놓고 불기를 몇대 쳤다.

선비 맞으면서 황급히 하는 말이 “烏乎라 呑之臀이야” (아이고 내 궁덩이야)했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저 웃고 봐치울 수는 없으니 여기에 이 글을 끄적거리고 있는 필자부터가 무엇을 안다고 쓰고 있다는 것부터가 부끄러워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몇자 아는 글자들을 늘어 놓고는 아는체하면서 천지의 대도를 가르친 성현들의 큰 뜻을 나타내어 밝히기는 고사하고 훈고적인 또 고증학적인 잔재 주로 도로 큰 뜻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두려운 것이다.

그러니 감히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는 것, 더구나 훈고학(訓詁學)적인 낱말 풀이, 자모뚱으로 도의 진면목을 밝힌다고 하는 것처럼 무모한 일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선가(禪家)에서는 不立文字<sup>3)</sup>(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라고

2) 조선조에 관가에 올리던 고소장, 진정서 등

까지 하고 있다.

그렇다고 또 한번 바꾸어 생각하면 말이나 글자 아니고 무엇으로 뜻을 나타내고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는가 반문하면 이 또한 해답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동양 한자의 道자는 길도 되고 인간의 진리도 되지만 말한다는 뜻도 지닌 것을 보아서 이 또한 삼각함수의 불가분리적 상관관계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신인조화의 대순사상 종지 제2장(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군더더기 말(贅言)과 같은 말을 늘어 놓았지만 이만큼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논고의 붓을 잡는다.

## I. 신명(神明)의 정의(定義)

신인간의 조화를 논하자면 먼저 신명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에 왜 신명의 개념이란 말을 쓰지 않았느냐 하면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유추(類推 : analogy)를 통해서 사물의 개념(概念 : concept)을 얻는다. 그러나 막연한 개념이 정의(定義 : definition)를 이루지 않아서는 정확한 판단(判斷 : judgment)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본논총 제1집에 대순사상의 신명관<sup>4)</sup>을 논급한 바 있어서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여기에 다시 신명(신)에 대한 개념을 정돈하여 하나의 정의를 설정하려하는 것이다.

### 1. 3계의 제신(諸神)

여기서 3계라고 하는 말은 우주 전체 천·지·인 3극3재(三極三才)<sup>5)</sup>를 말한다. 이 3계(三界)에 있는 신명은 곧 우주에 존재 운동하는 사물이나 현상의 수와 같은 만큼이나 존재한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3) 五燈會元 世尊章

4) 대순사상논총 제1집, 林泳暢 「대순사상의 신관고」 (p. 125)

5) 천·지·인 3계를 3극 또는 3재라고 한다

말하자면 대순사상에서 주신으로 받들고 있는 3천·옥황의 양위상제를 비롯해서 자연현상인 태양, 달, 별, 구름, 바람, 비, 우레, 벽력등 모두 신격이 있고 동서남북 중앙의 5방, 또 4방 4유(四方四維) 24절후등 모두가 신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순수한 우리말로 하늘님, 삼신, 돌개비, 헛개비 같은 것도 있고 불교의 영향을 받은 4천왕, 아귀, 아수라 같은 것도 있다.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 성신이니 천사니 마귀니 한 것도 생겨났다. 또 희랍신화나 로마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우리들 입에 예사로 쓰이게 되었다.

이런 신들을 간단히 분류해 보는 것도 그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

### 1) 천지주재신

가. 전경(典經)을 중심으로

천존 상제 무극신 천주

나. 한국 및 동양사상에서

하늘님 하늘님(한울님, 한우님, 하느님, 하나님)

아메노미나카누시노미코도(天之御中主神)

다. 서구사상에서

여호와(야웨, 엘로힘) 알라 제우스 주피터

### 2) 일반신명

가. 전경을 중심으로

천상신    중천신    황천신

지방신    문명신    도통신

백복신    육정신    조상신

만사신    압사신    아포신

원신    역신    적신 등

(기타생략)

나. 동양사상에서

산신    용왕    신장

조왕	척신	삼신
풍사	우백	뇌신
독각귀	유령	원귀
악귀	마 등	

다. 서구사상에서

군사신	예술신	농사신
사랑신	술신	질투신
마귀	천신	천군
성신	바다신	나무정령 등

하기야 일본인들은 신을 8백만신이라고 하기까지 하는 많은 신을 이상과 같이 간단히 유별해 본 것은 다만 신인조화를 논의하는 기초로서 정리해 본 것 뿐이다. 이 신명들의 주처(住處)를 따져서 천계, 지계, 인계로 분류한 결론이 있기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마치기로 한다.

## 2. 인간에게 내재(內在)한 신

우주의 영장(靈長)인 우리 인간은 3계 우주에 변만(徧滿)한 신명들만을 추정(推定)한데 끄치잖고 인간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신성(神性) 내지神明(神明)에 대한 인식을 지니게 되었으니 이것은 정신사의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

이것을 문자화하면 인내천(人乃天) 또는 인즉신(人卽神)이라는 사상으로 발전되는 것이니 바로 대순사상이야 말로 하나의 인간으로 지상에 출현했던 증산·정산 두분에게 상제의 위호를 붙이기까지에 이른 것이다.

인간에게 신이 있고 인간이 바로 신이라는 관념이 하나의 정의로 정립되기까지에는 인간에게 신성(神性)이 있다는 관념이나 또 인간은 신의 아들이다 하는 등속의 관념과 신앙이 있었지마는 인즉신(人卽神)관념의 위치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의 과도기적 인식의 중간과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기껏 초인(超人 = superman)이라고 인식되는 인간을 신인(神人) 또는 신동(神童)이라고 일컬으며 남보다 뛰어난 일을 신기(神奇)하다느니 신묘(神妙)하다느니 하고 있다. 비상한 기술을 신술(神術), 비상한 재주를 신기(神技)라

고 일컫고 뛰어난 의원을 신의(神醫), 뛰어난 약품을 신약(神藥), 잘만든 물건을 신품(神品), 뛰어난 지혜를 신지(神智), 훌륭한 글을 신운(神韻), 특별한 효력을 신효(神效)하다고 하고 아주 이상한 일을神通(神通)한 것이라고 하며 아주 재빠른 것을 신속(神速)하다고 하는 등 이렇게 많은 말 가운데 신(神)자가 붙는 말이 많은 것은 인간 속에 신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한 실증(實証)이 우리 언어생활 가운데서도 볼 수 있으니 다른 논문에서도 논의된 바 있었지만 여기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려 한다.

우리들 생활에서 세 살 먹은 어린애조차가 좀 좋은 일을 만나면 야 신난다 신명난다는 말을 하리만큼 널리 쓰이는 말이 신명(신)난다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 속에 신명이 있으니 그 신명(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관념적인 언어로만 간주할 수는 없으니 인간 가운데는 자타(自他)가 인정하는 신으로서 생활한 인간들이 허다하다.

이러한 관념에서 인간이 신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侍天主)의 사상도 생겨나고 모든 인간은 신의 아들이라는 생각도 나아 가서는 인간 모두가 곧 신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의 사상도 생겨난다.

절대주재신으로 군림하는 기독교의 경우에까지 성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하느님의 안에 있고 하느님이 내 안에 있다.<sup>6)</sup>

이렇게 신인합일(神人合一), 나아가서는 신인즉일(神人即一)의 경지를 교시한 것이다.

여기에 대순사상의 견지에서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은 외래종교 그 가운데도 인간을 신의 피조물(被造物)로 보고 무슨 창조(創造)라는 동양에 없던 사상을 퍼뜨린 종교사상 같은 것에 현혹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음양의 조화(造化)가 있어서 이것은 엄연히 창조라는 개념과는 다르게 되어 있으며 인간은 신의 노예로 그 임의로 구사(驅使)되는

6) 신약성서 요한복음

존재가 아니라, 당당히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다가 증산이 가르침대로 천존(天尊)보다 더 큰 인존(人尊)적 존재로 생존하고 생활하고 있으니 인간이 자신의 속에 내재(內在)한 신성내지 신명을 의식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인간이 곧 신 [人卽神] 이라는 대순신화가 성립되고 나아가서는 그 인신(人神)중의 최고신이 양위상제라는 신관(神觀)이 정립되는 것이다.

### 3. 인간사후의 신격위상

인간이 살아 있을 때도 신이난다, 신명난다, 정신(精神)이 상쾌하다고 해서 우리 속에 신명 곧 신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민족교육의 사상인 것은 여기서 다시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옛날 로마의 네로왕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한 고사(故事)나 또 제2차 세계전쟁때 일본의 유인(裕仁)7)왕을 현인신(現人神) 곧 살아 있는 신이라고 한 것도 이런 관점에서 수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그런 몇사람만이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다 현인신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는 인간에게 사람이란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의 보편화한 상례(常例)인 동시에 죽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신이라는 명칭을 부치게 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을 각가정마다 또 과거에는 국가 왕실에도 그랬듯이 국가적으로는 종묘(宗廟)에 개인적으로는 가묘(家廟) 곧 사당(祠堂)에 조상들을 모시기를 신위(神位)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의 독특한 관념 속에 생겨난 용어(用語)라고 할 것이니 한자문화의 선진국인 중국에서는 영위(靈位)라고 하고 한국에서도 불교에서는 영가(靈駕)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선격화한 국가의 군왕이나 왕족 또는 위인들만을 신궁(神宮) 또는 신사(神社)에 그 신체(神體)로서 대마(大麻)의 천조각을 모시고 있다.

7) 일본 제 124대왕. 일본인은 昭和천황이라고 칭한다



말하자면 국조를 모신 이세신궁(伊勢神宮) 백제인의 조상을 모신 쿠다라신사(百濟神社), 신라인 조상의 시라기신사(新羅神社, 白木神社)등과 그밖에 메이지왕(明治王)을 모신 신궁(神宮), 노기(乃木)<sup>8)</sup> 대장 도-고-(車郷) 대장<sup>9)</sup>을 모신 신사들도 있고 한국서 건너간 도공(陶工)을 신격화해서 모신 신사도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남성의 성기(性器)를 신격화한 연근신사(蓮根神社)<sup>10)</sup>도 있는 정도니 그들의 사서(史書)에 8백만신(八百萬神)이라고 표현하리만큼 신과 신사가 많아서 교-또(京都) 한도시만해도 사·사(社·寺)가 1천개소를 넘는다 고 한다. 그밖에도 종교 가운데는 다른 신은 제쳐두고 자기집 돌아간 조상들만 믿는 종교조차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일본서는 죽은 사람들을 다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호또께 [佛] 라고 부르는데 죽은 사람을 신(神)으로 모시는 것은 한국의 유일한 관습이라고 할 것이다.

## II. 인간의 위상(位相)

인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참으로 묘한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생물 가운데 호모(homo)라는 유인원(類人猿)과에 속하는 양족동물의 하나일 뿐인데 인문과학의 종교학적으로 보면 우주를 구성하는 천·지·인 3극(三極 또는 三才)의 하나가 되며 나아가서는 그 3극 가운데도 가장 큰 유아독존(唯我獨尊)의 위치에 있는 존재인 까닭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것을 감상적으로 찬양하고 우쭐거리기만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새앙쥐나 참새 같은 동물의 하나라고만은 생각하기 싫은 존재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몇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고찰하여 신인조화라는 큰

8) 러·일 전쟁때 공로가 많고 두 아들의 전사(戰死)와 노기부부의 순사(殉死)로서

일본 국민에게 존경을 받았다. 육군대장

9) 러·일 전쟁을 승전으로 이끈 해군원수

10) 일본에는 성기숭배와 다산(多産)기원의 대상으로 신사를 세웠다.

명제하에 먼저 인간이 지니고있는 정당한 위상(位相)을 인식하고 그 정체성(正體性)을 확립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건국신화에서 보는 민족적 위상, 또는 인간적 위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신(神)인 환인(桓因)이 수류(獸類)인 응녀(熊女) 곧 곰과 교혼(交婚)하여 국조 단군(檀君)이 탄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sup>11)</sup>

여기 대한 해석은 사학자(史學者)들의 많은 연구가 잊지마는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참으로 미묘한 완인(完人)적인 국조의 출현이 이로써 이루어졌다는 신기하고 신비한 의의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신과 축류(畜類)가 합해서 하나의 인간이 태어났으니 이 인간은 신성(神性)과 함께 수성(獸性)의 중간인 인성(人性)이 창출된 동시에 신·인·수성을 다 갖춘 신인(神人)이며 수인(獸人)인 인인(人人)을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신의 신성(神聖)과 수(獸)의 용맹(勇猛)이 합해 인의(仁義)를 구비하고 우주의 천·지·인 3극(三極)을 상징화한 신인(神人)이 신화(神話)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 1. 자연과학적 인간상(相)

인류(人類)라고 하면 태생물류와 구별되는 사람의 무리라는 뜻이 되고 인간(人間)이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들의 삶이 중심되는 말이라 할 것이지만 여기서 말한 인간의 위상(位相)은 광의적인 의미에서 그저 사람이란 뜻으로 인식하면 될 것이다.

이 사람(homo) 곧 인간이 생겨나고 성장하는 과정이나 존재가치를 먼저 자연과학의 생물학적으로 간단히 훑어 생각해보는 것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이때의 사람은 인류<sup>12)</sup>로 말하는 것이 옳다)이란 생물학적으로 영장

11) 一然 三國遺事 卷一

12) 사람이라고 하면 다만 人으로 표현될 것이고 인류라고 하면 생물학적으로 다른 생물과 구별되는 뜻을 지닐 것이며 人間이란 사회적 생활인의 뜻이 된다.

(靈長) 목(目) 사람과(科)에 속하는 하나의 생물이다. 다른 동물에 비해 뇌가 발달해 있고 치아(齒牙)와 저작근(咀嚼筋)이 퇴화한 특징이 있다.

그보다 더한 가시적(可視的) 현상은 양족(兩足)으로 직립(直立) 보행하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골반의 형상이 적응되어 있고 피모(皮毛)가 극도로 퇴화하게 되었다. 기물(器物)을 제작하는 기능과 함께 발성(發聲)의 의미부여로 언어가 구성되었고 물형묘사와 기호등으로 문자가 되게 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직립보행과 기물 제작·사용등 사람으로서의 여건을 갖춘 최고인(最高人 = Ostralo Pithekus)에서 원인(原人 = Sinantropus Pithekanthropus), 구인(舊人 = Neanderthal), 신인(新人 = Heidelberg), 현대인(現代人 또는 叡智人 = Homo sapiens)의 차례로 진화 발전해 왔는데 오늘의 인류에게는 호모 사피엔스·사피엔스·사피엔스라고 하기까지의 명칭을 붙이고 있다.<sup>13)</sup>

이것은 범인류의 발달, 발전과정을 살펴 본 것 뿐이지만 이제 하나의 인간이 지구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내력(來歷)을 짚어 보면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나아가서는 유물론(唯物論)적인 시야에 비쳐지는 인간상은 초라하고 가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모든 생물,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암수(雌雄) 곧 암·수의 교합에 의한 방법(이것이 형이상적으로 음양합덕으로 표현하기까지 승화(昇華)할 수 있는 것은 인문이 고도로 발달한 동양특유의 철학때문이다.)으로 생겨 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모든 동·식물의실례를 들 것은 없고 다만 본론의 대상인 인간의 경우를 알아 보면 이렇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교합으로 남성이 1회에 방출하는 정액 가운데 정충의 수효가 무려 4억내지 5억이라고 한다. 그 정충가운데 정자가 여성의 난자(卵子)와 결합되어 포태(胞胎)되어 10개월만에 세상에 나오는 것이 인간이다.

이 논고(論稿)의 필자나 또 독자들 모두가 마찬가지로지만 만일 오늘의 나라는 사람이 된 정자가 모친의 난자와 합했기에망정이지 내 곁에 있던 다른 정자가 합했다고 하면 내가 나던 때 태어난 것은 나 비슷한 다른 사람일 것

13) 이상에 열거한 것 이외에도 화석의 발굴에 따라 붙인 많은 명칭들이 있다.

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신의 예정이라느니 전생의 인과라느니 나라는 주체성의 권위나 영혼이니 운명이니 하는 일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를 요량(料量)할 수 없는 사정이 된다.

신인조화를 논하는 본고(本稿)에서 이런 자연과학적 영향을 논하는 것은 이렇게 대수롭지도 않은 직립동물일 뿐인 인간이 먼 옛날 인류의 조상들로부터 계계승승(繼繼承承)한 인간만이 지닌 예지(叡智) 그 슬기로서 음양의 개념을 지니고 신(神)과 불(佛)을 인식하게 되고 종교와 철학의 근본이 되는 도(道)의 개념을 설정하리만큼 발전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자연과학적 범주로서의 인류나 인간을 먼저 살피는 것이 무익하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자연과학적으로 보는 인간의 위상은 다만 미미한 하나의 생물일 뿐이지만 더 높은 차원의 형이상적인 눈으로 볼 때 비로소 우주의 일부가 되는, 나아가서는 우주와 맞먹는, 또 다시 우주의 주인공이 바로 인간이라는 정신적 가치관을 추출(抽出)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 2. 정신적 인간상

위에서 우리는 자연과학의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이란 하나의 동물을 살펴 보았지만 이것은 다만 인간이 지니고 있는 동물성의 면에서 보는 것 뿐이다. 이제 인간이 지닌 정신면에서 살펴 봄으로서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유가 다르게 마음이라고도 하는 정신(精神) 곧 신(神)을 지니고 있는 신령(神靈)스러운-나아가 신령이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수 있는 것이다.

인류의 선철(先哲)들과 또 세계의종교들이 가르친 인간의 값어치를 찾아 보는 정신적 인간상은 하늘과 땅과 함께 우주의 3재, 3극(三才三極)을 구성하고 있는 위대한 존재며 그 삼극전체의 주재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러한 정신적면에서의 인간위상을 옛날 서당에서 학동들에게 천자문(千字文)을 끝내고 교과서로 다음에 가르치던 동몽선습(童蒙先習)<sup>14)</sup>에서는

14) 동몽선습 : 조선 중종(中宗) 때 박세무(朴世茂)가 지은 아동용 교과서

맨 첫절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天地之間 萬物之中에 唯人이 最貴라(천지간에 있는 모든 물체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

하였는데 이것은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다고 해서 하늘이나 신(神)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으니 천신지기(天神地祇)<sup>15)</sup>의 아래서 귀하다는 뜻이 될 것이다. 여기서 좀 더 차원이 높게 표현된 것은 불교에서 석가모니의 탄생 설화 속에 나오는 다음 계송(偈頌)이 인간의 고귀함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無安 吾當安之<sup>16)</sup>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내가 홀로 존귀할 뿐  
 3계에 평안함이 없으니  
 내가 평안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한자역대로 읽으면 석가모니 개인의 주장인 것도 같지마는 산스크리트 원문은 인간 모두의 나(我) 곧 인간의 주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3계라는 것은 대순사상의 3계와는 다른 욕계(慾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의 3계를 이른다.

아무튼 천상 천하에 가장 존귀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무신론에 입각한 불교로서는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선언(宣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큰 교의라 할 것이다.

민족 자생종교의대교단인 천도교에서는 지금까지의 동양적 상제사상이나 또 서구 기독교, 회교등의 유일신관념에서 인간편으로 넘어 오는 실로 열린 [開關] 사상을 지녔으니 천도교이 문헌에서 찾아본다.

15) 하늘의 신(神)과 땅의 신(祇)

16) 대장경 본생경(나의 범어 Atman은 주체성을 뜻한다)

천지음양 시판 후에 / 백천만물 화해 나서 / 지우자(至愚者) 금수요 최  
령자(最靈者) 사람이라.<sup>17)</sup>

나는 도시 믿지말고 한울님을 믿으셔라 / 네 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  
(捨近取遠)하단말가<sup>18)</sup>

인간이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한 것은 인간의 몸에 한울님을 모셨기  
[侍天主] 때문이라는 것을 고조한 창교자 수운(水雲)의 인간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다음 2대 교주 해월(海月)에게 와서는 더 고도로 발전한다.

사람이 바로 한울이니 사람 섬기기를 한울같이 하라<sup>19)</sup>

이렇게 사람이 곧 한울 [人乃天] 이란 교훈을 한 것을 3대 교주 의암  
(義·菴)에게 와서는 아예 인내천(人乃天)이라는 교리로 못박고 다음과 같은  
해석도 내리고 있다.

한울이 유형(有形)하면 사람이오 무형(無形)하면 한울이니 한울과 사람  
은 하나이오 둘이로다.<sup>20)</sup>

한울이 곧 사람 [天乃人] 이고 사람이 곧 한울 [人乃天] 이므로 나누어  
생각하면 둘이지만 따져보면 하나라는 고도화한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그  
래서 천도교 교령이었던 최(崔)모씨가 이북으로가서 김일성을 ‘살아 있는 한  
울님’이라고 했던 것, 또 근일 역시 교령이었던 오(吳)모씨가 월북하여 그말  
을 다시 시인한 것은 또 2세교주 해월이 베짜는 여자를 한울님으로 본 것과  
같은 이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억지변명도 성립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의 기록이

---

17) 천도교경전 용담유사 도덕가에서

18) 천도교경전 용담유사 교훈가에서

19) 위의 책 해원신사법설

20) 천도교 중앙총부간 聖訓?義 철학

도가의 부인은 경솔히 아이를 때리지말라.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한울  
 님을 때리는 것이다.<sup>21)</sup>

한 것이 이러한 교의를 설명하는 것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일본서 생겨난 '세이쵸노이에(生長之家)'<sup>22)</sup>에서는

사람은 신(神)의 아들이다.<sup>23)</sup>

고 했는데 일본왕을 신이라고 하던 시대기 때문에 부득이 신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을 교주가 사적(私的)으로 털어놓은 것은 그 후의 일이다. 아무튼  
 이렇게 인간이 곧 신의 아들이다하는 말은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조차 믿으  
 면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고 또 불교같은 무신론의 종교도 인간에게 모  
 두 불성(佛性)이 있어서 깨달으면 다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모두 대동소  
 이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정신면적 가치관을 고조하는 모든 종교는 지역과 전통에  
 따라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인간의위상을 생리학적 동물의 세계에서 하늘  
 [天] 이나 신(神)이나 부처 [佛陀] 의 위상으로 까지 인양(引揚)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나 대순사상에서는 전경(典經)에 나타나 있는 바, 인간의 위상으로서  
 는 극치점(極致點)을 이루고 있다. 다음 몇마디 성구(聖句)로서도 인류 구원  
 성취의 한소식을 듣는다 할 것이니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마는 다시  
 적기(敵記)해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모사(謀事)는 재천하고 성사(成事)는 재인(在人)이니라<sup>24)</sup>

(※ 한문 성어(成語) 謀事는 在人하고 成事는 在天을 뒤바꿈)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권한(權限)과 능력(能力)이 하늘을 능가한다는 것을

21) 천도교 경전 해원신사법설

22) 일본의 다니구찌 마사하루(谷口雅春)가 개창한 신종교

23) 谷口雅春 生命の實相全集

24) 전경 교법 2장 35절

배울 수 있는데 증산(甞山)은 다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열리는(開關) 후천세계의 시대상(時代相) 인간상(人間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천존(天尊)과 지존(地尊)보다 인존(人尊)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人尊時代)라.<sup>25)</sup>

이야말로 후천시대의 새로운 인간위상이라기보다 천·지·인 3극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권한(權限)을 문자 그대로 원시반본(原始反本)하는 우주적 메시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야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존엄성과 주체성 그리고 권한과 능력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니 인류 환희의 대합창이 오늘 20세기말의 세계의 구석구석이 울려 퍼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의 눈이 열리잖은 무지하고 몽매하여 수성인간(獸性人間)의 탈을 벗지 못하고 있으니 딱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사회를 보더라도 인간의 전도된 가치관 속에서 황금만능과 물질지상의 사상이 새로운 물신주의(物神主義)가 되어 비리, 부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계의 혼탁상이 세기말적인 현상을 자아내고 있다.

생명경시의 살인, 폭행이 자행되고 인신매매, 성폭행등 인권무시의 범죄가 연속되고 있다.

건전한 윤리, 도덕은 이미 고대의 신화가 되어 버렸고 눈 앞에 있는 환경정리나 교통질서 같은 것도 안중에 없이 생존(생활이란 말을 잘먹고 잘입는 것으로만으로 간주하기 싫기에...) 하고 있으니 인존(人尊)을 포기하고 생물학적으로만 살고 있는 것이 당대풍정이니 하루 빨리 살아 있는 신(神)으로서 위상을 찾지않으면 개인의 이상도 국가 사회의 장래도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넉넉히 말할 수 있다.

---

25) 전경 교범 2장 56절



### 3. 인간의 선천과 후천

선천, 후천이라면 우리는 몇가지의 어의(語意)를 찾을 수 있다. 선천이란 글자 그대로 하늘이 생기기 전이란 뜻이고 후천은 생겨난 후가 되는 시대구분이 그 하나가 되지만 대순사상에서는 증산 곧 구천상제가 천지공사로서 후천을 개벽한 때부터를 후천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전을 선천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이것도 확연하게 꼭 어느 시기부터라는 것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주전체가 아닌 인간 그것도 일개인의 경우에는 선천이란 육체의 체격, 체질, 질병을 의미하고 정신적으로는 기국(器局), 품성(品性), 근기(根器 = 素質)등을 의미하고 후천이라면 육체적인 섭리(攝理), 보양(保養), 운동, 식이(食餌), 약이(藥餌)등의 관리가 될 것이며 정신적으로는 인격, 품성, 정서, 지식의 계발(啓發)등의 수양, 탁마(琢磨)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올바른 인간위상의 정립을 위한 선·후천의조절을 생각해보는 것이니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의 공도(公道)를 견지 않는다면 그것은 만물의 영장(靈長)인 인존시대의 인간다운 존재도 아니고 금수갈고 귀축(鬼畜)같은 처량한 동물이하의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여기에 신인간의 조화(調化)를 논하면서 이러한 인간 본연의 위상을 먼저 정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대순의 종지가 이상으로 하는 신인조화는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후천적인 육체와 정신의 섭리(攝理), 수양(收養)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첫째 육체면에서는 현대과학의 보건위생적 견지에서 요결(要訣)도 있고 체육경기 같은 것을 실천하는 방법도 있으며 건강식품이나 운동기구 같은 것도 있는데 근일 질병에 대한 의료기술과 의약품의 발달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70여세까지로 늘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다.

육체가 선천적으로 골격이 튼튼하고 품신이 준수하게 그리고 기운이 세계 태어난데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좋은 유전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선천적으로 체질을 잘 타고난 사람일 것이다.

거기에 5장(五藏 또는 五臟)<sup>26)</sup>인 심(心=心臟), 폐(肺=肺臟), 비(脾=脾臟), 간

(肝=肝臟), 신(腎=腎臟)과 6부(六腑)<sup>27)</sup> 곧 대장(大腸), 소장(小腸), 위(胃), 담(膽), 방광(膀胱), 삼초(三焦)와 피부와 혈액이 강건(強健)하게 태어났다고 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완인(完人)형의 인간일 것이다.

인간의 체위(體位), 체격(體格), 체질(體質)등의 향상문제나 위생, 보건 또는 질병치료는 물론 체육경기인 스포츠나 또 근일 유행하는 레저까지 포함하면 인간은 선천도 중요하지마는 후천의 양호, 섭리, 보신(保身)이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미신(迷信) 사도(邪道)로 뻗어 나간 건강식품이나 정력제 보신(補身) 보양(補養)의 약품이 허다하지마는 그런 것까지를 말하는 것은 가까운 지면만 소모하는 부질없는 일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이며 결론적인 하나의 해답이 있으니 그것은 대순진리회의 신조(信條) 4강령(四綱領)가운데 안신(安身)이란 항목이 바로 그것이다. 대순의 요람(要覽)에서 이 해설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마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몸이니 모든 행동을 법례(法禮)에 합당하게 하며 도리(道理)와 예법에 맞지 않는 허영(虛榮)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sup>28)</sup>

안신(安身)에 선행되는 것이 마음의 현상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고 하나며 [心身不二] 그들이 합일(合一)한데서 도리(道理)에 맞는 행동, 바로 그것으로 안신 곧 몸의 평안(平安)과 편안(便安)을 이룬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신조에 있는 안신(安身)이란 어휘는 그 출처가 주역계사에서니 해당 글구를 소개하면

尺蠖之屈 以求信也 龍蛇之聲 以存身也  
 精義入神 以致用也 利用安身 以崇德也  
 (자벌레가 움추리는 것은 뻗어나감을 구하기 때문이며 용이 숨어 있는 것은(비천을 위해) 몸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사람의) 진리가 신령한 것

26) 史記 扁鵲傳

27) 위의 책

28) 대순진리회 요람 七. 신조 4강령 (안심, 안신, 경천, 수도)

은 활용의 극치를 위함이나 활용을 더하여 몸을 안보(安保)하는 것으로써 덕업을 숭상하게 된다.)<sup>29)</sup>

위의 신조의 교훈이 마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물체가 몸이라고 하였는데 그 몸을 안보함으로써 덕을 숭상하게 된다고 해서 안심(安心)의 근본은 마음이고 안신의 결과는 숭덕(崇德)으로 나타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 종교인은 물론이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인간 육체의 후천적인 섭리(攝理)가 식생활의 영양관리라든지 보건체조라든지 건전한 오락이라든지 질병의 예방이라든지 한 구체적인 사실들이 있지만 이런 구체적인 것을 통털어 포함한 그 원칙의 원칙이 안신(安身)이란 한마디말로 총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모든 종교가 너무 마음과 정신으로 일변도(一邊倒)된 혐이 없지않아 있는데 대순사상에서 안심(安心)과 함께 안신(安身)을 신조(信條)의 하나로 거양(擧揚)한 것은 탁견(卓見) 탁론(卓論)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하기는 일체유심(一切唯心)을 고조하는 불교의 어떤 종파(宗派)에서는 종지(宗旨)를 현실생활의 이익이라고 내어 걸고 있기까지 하고 있는 실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내의 종단이 아닌 일본의 대종단 밀교(密敎)인 진언종(眞言宗)이다.<sup>30)</sup>

이 현세의 이익이라는 말과 안심, 안신을 비교해보면 대순사상이 얼마나 수승(殊勝)한 교의인 것을 누구든지 인식할 것이다.

일본사람의 이야기지만 현존해 있는 105세 노인의 재미스러운 말을 소개한다. 아들은 83세고 손자는 60세인데 아들되는 노인이 아버지에게 자기도 아버지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고 장수의 비결을 물었다. 그때 노인의 대답은 이러했다.

“음, 비행기 타지 마라, 복(腹) 먹지 마라”

말은 그뿐인데 그 의취(意趣)를 생각해 보면 조신(操身)해서 안신(安身)하라는 것이다.

29) 주역계사 하전

30) 일본의 高野山 眞言宗, 眞言宗 豊山派, 眞言宗 智山派등 그 宗旨가 ‘現世利益’라는 1개조뿐이다.

다음 인간의 정신적 선후천을 생각해 본다.

선천적으로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 있다. 그것도 기억력이 우수한 사람도 있고 직각(直覺)의 판단성이 출중(出衆)한 이도 있으며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다.

또 감수성이 빠른 사람, 감정이 풍부한 사람, 낙천적이며 긍정적인 사람, 비관적이며 부정적인 사람, 그래서 대국적(大局的)이고 활동적인 사람, 치밀하면서 소심(小心)한 사람등 선천적으로 각각 다르게 태어나는 것이 인간들이다.

그보다도 종교적이며 도덕성이 강한 윤리적인 사람 현실적이며 포악한 성질로 악행이 취미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 또 남과 조화해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독단적이고 개인적 이기주의로만 사는 사람,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 예술을 즐기는 사람, 체육경기에 뛰어난 사람 그리고 그 반면에 투기도박, 주색잡기를 좋아하는 등 천인천태(千人千態) 만인만상(萬人萬象)으로 사람의 용모가 갖가지듯이 심성도 갖가지다.

더구나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인의(仁義)와 자비(慈悲), 박애(博愛)의 정신이 있어서 문자 그대로의 성심(聖心)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언젠가 있던 미국영화처럼 베드 시드(bed seed = 惡의 種子)로 태어나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싶은 나찰(羅刹)<sup>31)</sup>과 귀마(鬼魔)<sup>32)</sup>같은 심성을 지닌 인간도 있다.

그러니 좋은 면으로 봐서 모두가 신(神)인 사람들 또는 신의 아들이며 적은 우주 [小宇宙] 적 존재며 모두가 보살이고 부처인 사람들이라고 하든지 그 반면에 성악설(性惡說)<sup>33)</sup>처럼 모두가 악의 화신(化身)으로 태어난 것이 인간들이라고 보든지 하고 있다. 여하간에 선천적인 인간의 품성(品性)이나 지혜가 감정 또 그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 후천적인 순치(馴致)와 도야(陶冶)가 있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것에는 아무도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천성(天性) 불성(佛性 = 협의적인 견지에서) 도성(道性)을

31) 나찰(Raksasa) 羅叉婆, 羅刹婆 (불교대장경)

32) 귀신과 마라(魔羅)들

33) 中 전국시대 유학자 순자(荀子)의 주창

지닌 인간이나 또 마성(魔性), 수성(獸性)을 지닌 인간을 막론하고 인류의 공통적인 것이든지 또 개개인의 특수한 방법으로든지 절차탁마(切磋琢磨)의 노력으로 심성을 개발하고 풍격을 수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인간의 인간다운 향상(向上)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인류의 많은 스승들이 어떻게 교시(敎示)하고 있으며 또 각양 각색의 모든 종교와 윤리 도덕적인 교훈이 어떠한가를 상고해 보는 것이다.

먼저 동양의 윤리철학적 종교인 유교의 경우부터 찾아 본다. 유교는 공부자(孔夫子)에게서 비롯하는데 그 공자의 가르침은 인(仁)에서 비롯한다. 그 인(仁)을 공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於仁 (안연이 仁을 물으니 공자께서 자기를 이기고 禮에 돌아옴을 仁이라 한다고 하셨다)<sup>34)</sup>

이 말씀은 예(禮)에 치중하였는데 외형상 공경을 갖춘 질서와 규제, 작법을 뜻하기도 하지만 국가 사회의 조직과 지켜야 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또 이런 말씀이 있으니

樊遲問仁 子曰 愛人(번지가 仁을 물으니 공자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격이라고 하셨다)<sup>35)</sup>

여기에는 인(仁)이란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위의 말씀과 그 근본 뜻에서는 다름이 없다고 볼 것이니 이기적(利己的)인 것을 극복 곧 극기(克己)를 하고 남에게 예를 한다고 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發露)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공자이후 맹자(孟子)에게 와서 인(仁)에 의(義)가 보태어져 인의(仁義)가 되고 또 후에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5상(五常)으로 뻗어나갔지마는 가장 근본되는 것이 인(仁)이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일이다.

거기에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가 인간의 최고

34) 논어 권6 顏淵 제12

35) 논어 권6 顏淵 제12

희망적 이상이 되어 오늘까지도 우리를 지도하는 범칙(範則)이 되고 있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선천을 3세인과(三世因果)적으로 전세(前世) 전전세의 행업(行業)에 대한 과(果) 곧 업보(業報)라고 보아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의 인과법의 적용으로 선천이 설정된다고 보는 것이 핵심되는 교의가 되어있다.

그리하여 후천이라고 할 생후의 세계를 전업(前業)에 순응하면서 교정해 가는 형식인데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무명(無明=無知)이라고 보아 이 무명에서 올바른 지혜로서 깨달으면 보디(bodhi=菩提)의 증과(證果)를 얻어 각자(覺者=buddha)가 된다고 가르친다.

후천 수양, 수행의 방법도 교의의 갈래가 많듯이 또한 많은 방향으로 갈라진 설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보편화(普遍化)한 방법의 교의로 4성제(四聖諦)란 법문이 있다.

4성제란 것은 인도의학에서 요병(療病)의 원칙인데 석가모니가 이것을 정신적 측면에서 종교적인 것으로 교훈한 것이라 한다.

아무튼 4성제란 것을 소개하면 이렇다. 1. 고제(苦諦=인간은 원래 괴롭다는 전제(前提)적 이론) 2. 집제(集諦= 그 괴로움의 원인은 온갖 번뇌망상 - 그것이 탐·진·치(貪瞋癡) 곧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이 집적(集積)된 것이라고 본다. 3. 멸제(滅諦=그 괴로움의 원인을 모두 소멸(消滅=범어(梵語)로는 니르바나(nir-vana=涅槃) 시켜야 한다) 4. 도제(道諦= 그리고 나서正道(正道) 중도(中道)를 지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유태교, 기독교(구·신교)의 경우는 자력교(自力敎)가 아닌 타력교(他力敎)인 때문에 교리의 구성이 다르다. 그것은 인간은 처음 조상 내외분이 신(神)의 명을 어기고 죄를 지은 원죄(原罪)를 선천적으로 지니고 남기 때문에 아무리 선행을 하고 덕을 쌓아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신(神=예수가 곧 신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경우다)을 신앙하고 그가 명한대로 후천에서 생활하면 그것으로 살아서 평안하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덮어 놓고 믿으라는 절대신앙 함께 인간의 후천 수양을 제시하고

있으니 첫째는 하느(나)님 곧 신을 믿고 사랑하고 이웃사람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상으로 대표적인 기성종교의 선후춘관을 소개했지만 대순진리회가 갈치는 안심 안신이 이 모든 종교의 후천적 수양, 수행의 핵심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 신조(信條)의 안심 부분을 발췌해 보면 이렇다.

편벽되고 사사(私邪)됨이 진실하고  
 순결한 본연의 양심으로  
 허무한 꾀임에 움직이지 말고 허욕에  
 마음 팔리지 말고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마음을 안정케 한다.<sup>36)</sup>

바로 유교에서 연원하여 불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안심입명(安心立命)의 취의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극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신인조화의 전제로서 신의 위상과 함께 인간의 위상을 고찰해 보았는 바 따져보면 신이나 또 신을 대상으로 한 종교가 무엇 때문에 있는가 하면 인간 때문에 생겼고 또 존재하다고 보는 인본(人本) 인존(人尊)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 Ⅲ. 신과 인간의 상관관계

우리는 제 I 장에서 신명을 또 제 II 장에서 인간을 살펴본바 그 위상을 고구한 것은 신과 인간이 무엇보다도 지근(至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니 대순의 종지가 가르치는 바 신인의 조화가 종교상으로 더 나아가 인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현실생활과 정신생활에 얼마나 큰 몫아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TV의 납량(納涼)특집으로 꾸며내는 괴기(怪奇)

36) 대순진리회 요람 신조 4강령

설화에서 보는 귀신이나 유령의 작용이라든지 한 비속(鄙俗)한 사실들이 아닌 우주관, 인생관적인 높은 차원의 종교사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독교를 중심한 서구사상에서는 신을 조물자(造物者:동양사상의 造化者적 관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로 보고 인간을 피조물(被造物)로 인식하여 신은 인간의 지배자(그것도 지극한 독재적 성격을 지닌)로 숭봉(崇奉)하고 있다.

기독교의 교의서인 '요리문답'<sup>37)</sup> 제1조에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나?' 하는 물음에 '하느(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하는 대답인데 이것은 구·신교(旧新敎 곧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에 다 같이 설정 사용되고 있다.

이런 종교관념 속에서 종교의 정의조차를 '신과 인간간의 관계인 바 초인간적인 절대자를 외경(畏敬)하여 예배, 신앙하는 것'이라고 하여 있으리만큼 신인간의 관계를 설정해 있다.

신인간의 극단적인 관념은 유대민족처럼 여호와라는 자기네의 신이 천지우주를 창조했는 바 모든 인종 가운데도 유대족을 자기(곧 신의) 백성으로 지정했다고 하는 선민(選民)의식조차 지니고 있으니 구약성서에서 여호와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느님이다.

하는 유대민족의 신이란 것을 분명히 말하는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sup>38)</sup>  
이러한 선민사상은 동양에도 있어서 일본의 건국신화에도

이 땅은 벼이삭이 잘 익는 나라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8백만세에 번영하라.<sup>39)</sup>

는 신탁(神託)이 있었다고 하고

---

37)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 (신구교가 공통으로 사용하며 신부, 목사의 최종 고시(考試)에는 반드시 독송 긍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교의서)

38) 구약성서 출애굽기 제3장

39) 일본 古事記. 日本書紀



우리나라의 개국신화에도 환웅(桓雄) 천왕(天王)이 3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太白山) 신단수 아래 강림하셨다고 사서(史書)는 전하고 있다.

아무튼 신·인간의 상관관계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병행되는 가위 2위1체적인 사실로 인간 개인에게나 또 인류 전체에게 함께하는 증대사라고 생각해서 다음 몇가지 항목으로 고구해 보는 것이다.

## 1. 음양합덕의 원리적 관점

신인조화라는 종지 제2항을 고구하기에 앞서 음양합덕이라는 제1항의 제목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것은 곧 신인조화의 사상이 음양합덕을 기저로 성립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로서도 인간이 죽은 다음의 세계 곧 신의 세계를 음부(陰府)라고 또 유계(幽界)라고 하고 있어서 양(陽)은 인간, 인간세계를 말하고 음(陰)은 신명(神明)이나 신계(神界)를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대순진리회의 종지 첫째인 음양합덕의 속에 신인조화는 자동적으로 내포되고 있다고 볼 것은 신도 인간도 모두 무극태극의 양의(兩儀)인 음양의 조화(造化)속에 이루어진 존재로서 다만 그 본질이 음(陰)이고 양(陽)인 것이 다르다고 할 뿐인 것이다.

신명의 속성이 음이고 인간의 속성이 양이라는 것은 굳이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알 것이니 과거 우리 선인(先人)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던 전설 설화 가운데는 얼마든지 그 실례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먼 옛날에 있었던 일보다 필자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한 가운데 경험한 두어가지 실화를 여기에 피력한다.

친구의 한사람이 소시(少時)부터 산공부를 한다고 강원도 산중에 있을 때 인데 하룻밤에는 공부하는 방에 자정(子正)이 지나서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서늘한 바람이 불며 머리맡에 둔 촛불이 꺼졌다.(이것은 다른이도 공통되게 경험한다.)

그러더니 깜깜해진 방 웃목 구석에 흰 그림자가 하나가 와서 앉는다. 음계(陰界)의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누군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오셨오?”하고 물었다.

머리를 풀어내린 여인의 모습인데 하는 말이 “저는 이 아래 동네에 살던 처자(處子=處女)였는데 산에 나물을 캐러 왔다가 산비탈에 미끄러져 아래 계곡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시체가 썩고 새 짐승이 뜯어 먹는 것을 아무도 감추어 주지도 않은채 바위들 새에 3년째 그냥 있습니다. 공자(公子=다른 말을 쓰지 않고 공자라고 하던 것이 흐뭇했다고 내 친구가 자랑했다)께 제 시신을 부탁코자 하오니 해골을 어디에 감추어 주시면 안심하고 중음(中陰)<sup>40)</sup>을 떠나겠습니다.”하였다.

그래서 그 이튿날 마을에 가서 알아보니 3년 전에 산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딸이 있는 집이 있었다. 찾다가 못찾고 아마 범에게 물려갔나 보다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함께 수색하여 찾아서 따뜻한 양지 기슭에 해골을 묻어 주고 자기도 잔을 올렸다고 한 것이다.

그 후일담으로 장사지낸 그날 밤에 다시 그 유계의 여인이 찾아와서 감사와 함께 저승으로 떠난다는 인사를 하였는데 축시(丑時=밤1時~3時)가 되자 인신(人身)이 아니라서 가지 않으면 안된다 하고 떠났다고 했다.

내 친구 또는 아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신명과 인간이 만난 이야기. 신명의 지시로 모르던 일을 알게 된 일 등 많은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은 그 가운데는 잠재의식의 환청(幻聽) 환상(幻像)으로 나타난 것도 있을 것이고 저급(低級)한 잡귀(雜鬼)의 장난도 있겠지만 그저 비과학적인 미신으로만 몰아 버릴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하다.

아무튼 신명과 인간, 신계(神界)와 인계(人界)의 조화(調和)가 없이는 우주 자연의 조화(造化)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넉넉히 단언할 수 있으니 그것은 곧 음양의 양의가 합덕해야 한다는 우주 자연 질서의 정당하고 또 정상적인 조화 발전의 기초 요건이기 때문인 것을 거듭 말해 두지 않을 수 없다.

## 2. 인간에게 내재(內在)한 신인조화

필자가 2집 神觀攷에서 밀교의 경전 속에 나오는 신성(神性) 인간과 수성(獸性)인간을 말했지만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고 금수연한 인간의 이야기는

40) 中有라고도 하는데 인계와 유계(幽界)의 중간세계라고 한다. 中陰經

요즈음 눈 앞에 보이는 허다한 실례가 있으니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에는 모든 인간이 다 신성(神性) 불성(佛性)이 있는 인간으로 간주하고서의 논의를 진행한다.

모든 인간에게는 신명이 내재한다. 이것을 전경은 풀잎 하나에도 흙벽 같은 무생물에도 신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교시하고 있다.<sup>41)</sup>

이런 교의(教義)의 견지에서 보면 우주의 삼라만상 풍우뇌전(風雨雷電)의 자연현상에서부터 산하대지(山河大地) 그리고 그 안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 미생물, 그밖의 암석초목(巖石草木), 쇠불이 하나, 모래알 하나에 다 신이 내재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그 가운데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속에 신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될 것이다.

그런 전제 아래 인간은 다른 장소에 있는 또 다른 것에 있는 신을 찾아 그 조화를 꾸려나가기에 앞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신명(더 쉽게 말하면 신성(神性)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과 인간성 곧 인성(人性)의 합덕과 조화를 꾀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이 신인조화의 입지(立地)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인간의 내재적 신인조화라고 할 것인가를 고구하는 바 이것은 인간의 수신, 수심의 가장 요제가 되는 것이 아닐수 없다.

그런 하나의 실례로 근일 자주 거론되고 있는 주부도박단의 한사람인 대학교수의 부인이 있다. 가난한 학자의 부인으로 반평생을 살아 나오면서 남편의 직업적 지위의 남의 눈이 있어서 남들처럼 화려한 의복이나 화장도 못해보고 유희하는 장소나 관광여행도 별로 못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장난 음식내기의 놀음을 한 것이 하나의 오락이 되고 취미가 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발전해서 돈내기가 되는데 차츰 단위가 올라가서 하룻밤에 남편 한달 월급의 액수가 오락가락하는 단계가 되었다. 그때 이 뿌인의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 그의 속에 있는 신명의 신심(神心)은 그런 부정한 일에 빠지면 오신명(誤身命)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인간이 탐욕적인 인심(人心)은 기왕 시작한 김에 한몫 잡아야 되잖겠느냐고 부추겼을 것이다.

41) 전경 교법 3장 2절

인간 스스로가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마음 속에 바르고 [正] 그릇된 [邪] 두가지 목소리가 울려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에 있는 착하고 악한 신명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간 스스로가 외부에 있는 객체적(客體的) 존재인 신명보다도 스스로의몸안에 내재(內在)한 주체적 신명, 그 정신과의 조화가 없어서는 인격과 성격의 파탄은 물론이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부조(不調)하여 병질(病疾)이 생길뿐더러 성격과 행업(行業)의 파탄(破綻)으로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대순사상의 신조에서 말하는 안심, 안신도 그 근본을 따져보면 음양합덕, 신인조화가 이루어져야만 성취할 수 있는 명제(命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선천적 심신에 대한 자부심의 만족감이나 또 그에 반한 열등의식의 패배감으로 자신을 망치고 사회를 혼탁하게 하며 심하면 변질적인 범죄까지를 저지를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음양합덕에 따른 신인조화가 없어서는 안되는 것인바 그 조화는 외부, 외계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 내재한 신과 인간에게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3. 인간에게 미치는 신의 영향력

인간이 신에게 끼치는 영향력도 인간 스스로가 알 수 없지만 신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인간 자체가 주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다.

그것의 극대(極大)적인 표현은 유대교나, 기독교, 회교처럼

- 우주의 만물을 신이 만들었고
- 때문에 인간도 그의 피조물(被造物)이며
- 우주 만사, 인간 만사가 그의 정한대로 움직이며
- 따라서 인간의 사생화복(死生禍福)도 그가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동양사상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발달되었지만은 우주만물을 창조했다느니 하는 낮은 차원의 생각이 아니라 태극양 의와 5행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造化] 것이라고 믿는 고차원의 사상이다.

그러나 다만 모든 행위를 천명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서구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한다는 것과 상통한다 할 것이다.

여기에 비교하면 대순사상의 천지도수란 관념은 높은 차원의 이념이니 어떤 정신적 독재군주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닌 음양오행의 조화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것을 구천상제 증산같은 분은 내가 천지도수를 뜯어 고친다고 하여 그 운도의 교정을 자유로 하는 권능을 지녔다고 한 것이 독특한 상제로서의 대각이랄 것이다.

아무튼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본(神本)주의에서 반역을 일으킨 인본(人本)주의의 발달과 무신론(無神論)의 대두(擡頭) 거기에 자연과학의 발달이 가세해서 신을 외경하던 저자세와 또 그 영향력의 권위가 추락하게 된 것이 당금의 현상이지만 인간이 인간의 힘만으로 해결 못하는 초인간적 사상 그 영향력으로 인류의 역사 그 가운데도 문화사는 발전된 것으로 믿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굳이 옛날의 야담이나 설화를 일일이 소개할 것은 없고 다만 신에게서 받는 영향력을 표현한 몇 개의 어휘로서 신인간의 교류를 찾아 본다.

신의 가호(加護)를 받는 일

- 신부(神符=신의 가호를 위한 부적)
- 신우(神祐=신의 도움)
- 신조(神助=신의 도움)

신의 처벌(處罰)을 받는 일

- 신수(神祟=신의 벌)
- 신벌(神罰=신의 벌)
- 신견(神譴=신의 벌)

이런 말들을 보아서도 신이 인간을 도와 주기도 하고 또 벌을 내릴 수도 있다고 믿어 온 것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신과 상통하여 신비한 힘을 얻는神通력(神通力)도 있지만 신이 작용해서 생기는 변화가 있어 신변(神變)이란 말도 있다.

신의 세계에 개안이 된 사람의 눈으로 관(觀)하면 우리 인간의 주변에는 늘 선신(善神)과 악신(惡神)이 있어서 착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신이 도와 주고 악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면 선신(善神)은 멀어지고 악신이 힘을 내어 더 악하게 밀어 주다가 나중에는 그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을 보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영통자(靈通者)들이 있어서 신계(神界)의 일을 연구하고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지만 한국서는 과거시대에 전국에 파다(頗多)했던 것도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어려운 실례들을 인용할 것은 없고 필자의 친구 가정에 있었던 꿈의 영묘한 실례를 하나 들어 보겠다.

T시의 명문고교인 K고등의 교목(校牧) 곧 학교목사로 있던 C라는 친구인데 그의 부친이 장로(長老)직으로 있다가 급환으로 돌아갔다. 장례를 마치고 그의 어머니가 가산 정리에 골몰하였다. (내 친구는 그때 보통학교에 다니던 소년이었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룻밤 꿈 가운데서 돌아간 그의 아버지 곧 남편을 만났는데 꿈에서 하는 말이 “내가 교회 모(某)씨에게 돈 3원을 빌린 것을 갚지 못했는데 그걸 꼭 갚아 주시오”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날 채권자를 찾아서 그 이야기를 하고 굳이 안받으려 하는 것을 망령의 부탁이라고 해서 갚은 일이 있다.

하기야 이런 일은 영능자(靈能者)가 신탁(神託)을 받아 예언, 예시를 하는 것이나 입신(入神)의 경지에서 남의 과거사, 미래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비교하면 다만 피동적인 꿈뿐이었으니 대단한 일은 아니다.

인간에게 미치는 신의 영향력을 종교에서 찾아보면 종교 그 자체가 대개의 경우 신의 영향력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교가 다 그 영향 아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교의 경우 인간과 하늘(天)과의 관계, 천신(天神)의 영향력을 고조하고 있는 것은 모두다 알고 있으니 옛글은 이렇게 교시하고 있다.

順天者는 天이 報之以福하고 逆天者는 天이 報之以禍니라(하늘을 순종하는 이는 하늘이 복으로써 갚을 것이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하늘이 화로써 갚을 것이다)<sup>42)</sup>

인간의 화복(禍福)을 하늘이 좌우한다는 숙명론(宿命論)도 되고 인과법(因果法)도 되는 종교의 교의로서도 훌륭한 요소를 지닌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의 경우 신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해도 부처나 보살에게 원(願)<sup>43)</sup>을 걸고 귀명(皈命=皈依와 같은 말)하면 재난을 면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불·보살이 끼치는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다.

기독교는 어떤가 하면 신본위(神本位)의 종교니만큼 가장 강력한 신의 영향력을 표현하고 있다. 모세의 10계명(十誡命)가운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나(여호와)를 거역하고 내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 자손의 3·4대까지 재앙을 줄 것이요, 나를 섬기고 경배하는 자는 수천대까지 복을 주리라.<sup>44)</sup>

인간의 일상생활이나 국가민족의 생존 발전, 나아가서는 세계 전체, 우주 전체에 이르기까지 신과 신계의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것을 전경에서 증산은 한포기 풀이나 담벼락 하나도 신이 떠나면 존재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으니 그것을 봐도 더욱 그렇다.

그것이 인간 내재(內在)의 신이든 외부(外部) 외계(外界)의 신이든 그 신들의 영향력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자연과학적이 아닌 정신문화의 종교관으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더구나 육체와 정신을 분리해 생각지 않던 동양인의 사상에는 음과 양이 둘이 아닌 태극이고 무극이듯이 신과 인간도 둘이 아니고 곧 음과 양의 기

42) 明心보감 제1절

43) 원(願) 불교에는 원래 기도(祈禱)란 말은 없고 원(願)이 있다. 기도는 도교(道敎)에서 비롯된 말이다.

44) 구약성서 출애굽기 10계명

저(基底)위에 존재해 있는 사상(事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손바닥의 겉과 속 [表裏] 와 같다고 할 것이다.

## IV. 조화(調化)의 정신과 실천

위에서 신과 인간의 위상을 알아보고 그리고 신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신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신인간의 조화를 위한 본론의 전제로서 상고한 것인 바 이제 신인조화의 근본정신을 추구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 대응과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고구해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말로써 조화라고 하면 외국어로 하모니(harmony)라고 하는 조화(調和)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화’자가 ‘율화(化)’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調)에서 조화(調和), 화(化)에서 조화(造化)의 뜻을 합한 새로운 단어가 된다. 그래서 그 뜻은 신명과 인간이 서로 어울려 조화(調和)하여 만사를 이루어 가고 [造化] 화육(化育)한다는 것이니 음양합덕의 이상이 신인조화로 표현되는 대순사상의 진면목을 발휘하게 된다.

### 1. 조(調) · 화(化)의 의미와 작용

위에서 조(調)의 뜻을 조화(調和)라는 뜻으로 보았지만 사전(字典)적 풀이로서는 많은 뜻을 지니고 있다. 신인조화의 개념을 확연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필요할 것이기에 간추려 보는 것이다. 먼저 조(調)자가 지닌 문자의 개념부터 알아보면 이러하다.

- 1) 부드럽게 하여 합치시키는 뜻
  - 조정(調整) : 고르게 정리함
  - 조화(調和) : 사물이 잘 섭리(攝理)됨
  - 해조(諧調) 동조(同調) : 화합함
  - 조합(調合) : 고르게 어울림



- 조정(調停) : 양측을 화해시킴
- 2) 사리(事理)로 밝힌다는 뜻
  - 조사(調查) : 사물을 따져봄
  - 조도(調度) : 일의 장단(長短)을 알아봄
  - 조률(調律) : 음성의 율려(律呂)를 고름
  - 조달(調達) : 조(調)하여 달통함
- 3) 사물의 기준
  - 격조(格調) : 격식다운 기준
  - 음조(音調) : 음률의 기준
  - 전조(前調) : 사물의 전제되는 일
- 4) 사물을 알맞게 고르는 것
  - 조제(調劑) : 약품을 법도 맞춰 조합함
  - 조미(調味) : 음식의 맛을 알맞게 고름
  - 조절(調節) : 사물을 알맞게 함
- 5) 양호(養護)의 뜻으로
  - 조호(調護) : 몸을 조섭하여 보호함
  - 조섭(調攝) : 몸을 고르게 섭리함
  - 조순(調馴) : 동물을 길들임<sup>45)</sup>

이처럼 많은 말들이 있어서 조(調)자의 용도가 각양으로 이용되고 있는 바 이 조(調)자의 훈(訓)과 음을 ‘고르 조’라고 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할 일이다. 그래서 이상의 응용 어휘들을 참고하여 얻을 수 있는 개념을 ‘균등하게 조절, 조정하되 조화(調和) 해조(諧調)로서 하는 작용이란 것이라고 함직한 것이다.

다음은 화(化)자에 대하여 먼저 이 화자의 훈(訓)과 음을 ‘될화(化)’<sup>46)</sup>라고 해서 쉬운 우리말로 ‘된다’는 뜻이 되어 ‘한다’는 말의 능동적인 것의 반대로 피동적(被動的) 표현의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런 관계인지 조(調)자에서

45) 양주동 최신국어대사전, 동아출판사 새국어대사전

46) 化(될화) : 근일 근대화(근대적으로 된다) 세계화(세계적으로 된다)하는 말에 근대화된다. 세계화된다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문법상의 誤用이다.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어휘가 구성되어 있지만은 대강 중요한 어휘들만 수집(蒐集)해 본다.

1) 조화(造化)의 뜻을 지닌 것

- 화력(化力) : 조화의 힘
- 화공(化工) : 조화의 재주
- 화육(化育) : 천지가 만물을 기름

2) 진화(進化)의 뜻

- 화생(化生) : 새롭게 조화생성함
- 화성(化成) : 좋게 개조(改造)됨

3) 그밖의 의미

- 화감(化感) : 선(善)으로 화함
- 화순(化醇) : 화력(化力)을 돈독케함
- 화도(化導) : 덕화로서 교도(教導)함

이상은 화(化)자가 앞에 있는 어휘들인데 화(化)가 뒤에 들어 있는 것은 너무 많으니 현대의 우리들 주변에 근대화, 현대화,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화, 세기화, 과학화, 기계화등 무수한 어휘들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바 옛날투의 용례를 추려 보아도 다음과 같이 한만(冗漫)하기 때문에 자구(字句)의 해석은 생략한다.

1) 형이상적인 것

- 이화(理化)    · 덕화(德化)
- 인화(仁化)    · 혜화(惠化)
- 선화(善化)    · 미화(美化)

2) 교화적인 것

- 교화(教化)    · 왕화(王化)
- 궁화(躬化)    · 훈화(訓化)
- 친화(親化)    · 순화(醇化)

· 감화(感化)

3) 자연현상에서

· 조화(造化) · 진화(進化)

· 퇴화(退化) · 천화(遷化)

· 둔화(鈍化) · 노화(老化)

위에서도 말했듯이 현실화니 육체화니 심지어도 평준화니 보변화니 영화화니 하는등 금후에도 더 많은 진화와 발전화가 있을 것으로 안다.

그러나 여기서 조화의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그 공효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신인조화가 구시대의 낡은 종교교의가 아니라 21세기를 맞는 오늘의 우리 생활을 개발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지표(指標)로서의 새로운 이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의 경우, 인간이 하나의 생물학적인 존재로 먹기만 하고 살기만 [生存]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게 내재(內在)한 신명과 조화, 조절하고 신계(神界=신을 인격화하기 싫은 사람은 정신계라고 하면 될 것이다)의 제신(諸神)과 조화, 해조(諧調)하여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값지고 희망에 찬, 그리고 용기있는 인간(밀교의 말처럼 용성인간(勇性人間))이 되어 안심입명(安心立命)한 생애를 보내게 될 것이 아닌가!

## 2. 조화(調化)적 신앙과 실천

종교인의 종교신앙과 조화의 상관관계와 그 실천행동적측면에서의 공효를 고찰해 본다.

세계의 어느 종교든지 그 교의의 사상, 의식 및 실천방식은 다르지마는 그 본원적 정점(頂点)에서는 일치하는 것이니 그 모든 것이 곧 무극과 태극의 음양합덕에서 출발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그러나 그것이 개별종교의 발상지와 그 교조가 지닌 문화전통에 의해서 표현된 언어 문자로 표현되는 교의의 근본정신은 가위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할 것이다. 기독교의 하느(나)님이라는 존재나 천도교의 한울님이나

불교의 바이로차나붓다(昆盧遮那佛)<sup>47)</sup>나 동양사상의 무극·태극이나 심지어 과학에서 자연(自然)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우주의 시원(始原)적 사상을 두 교서의 각자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런 공통성과 개별성을 구별하기 위해서도 신앙자는 자기 종교의 특수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니 그 인식의 대중(大宗)은 뭐니 해도 대순 종지(宗旨)의 강령(綱領)이다.

강령은 순수한 우리말로 버리(綱)란 것인데 쉽게 말하면 큰 기둥만한 밧줄이다. 종교교의의 큰 밧줄, 그 인생의 밧줄이 약새서 끊어질 것 같아 된다고 하면 그의 종교도 인생도 완성할 수는 없다. 때문에 음양합덕과 함께 신인조화의 버리가 굳고 튼튼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 자명(自明)한 일이다.

그러면 이제 그 버리되는 줄을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 : 다시 말하면 어떻게 조화(調化)의 종교생활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실천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바이다.

첫째 개인의 신앙상으로 종교인의 신앙생활은 조와 화 바로 신인조화의 신심(信心)을 돈독하게 가져야 할 것이다. 육체의 풍요와 향락 일변도로 나가는 생활은 종교인의 생활 형태가 아니니 정신과 육체 곧 자신의 합덕 조화로서 중용적이고 중도적인 바탕 위에 생활하지 않는 종교인은 있을 수 없다.

신인조화의 사상을 모르고 생활하는 현대의 국가상(相) 사회상(相)은 문자 그대로의 혼미(昏迷) 혼돈(混沌)상태로 부모와 형제를 살상하고 아내와 자식을 살해하며 토막살인이니 하는 전대미문의 범죄가 자행(恣行)된다. 친구의 자녀를 40대 장년과 60대 노년이 윤간을 하는 등 신목이 여전(神目如電)이란 글자도 모르고 천신(天神) 두려운 줄 모르는 수성(獸性人間)의 횡행을 눈앞에 보고 있다.

둘째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비합리, 부조리의 사태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니 정치, 행정, 경제, 문화, 교육, 종교계의 비리와 부정은

47) 大日如來라고 번역하는데 부처의 法身으로 우주 삼라만상을 통솔한다고 한다.

물론, 외제 선호에 들뜬 주부와 보약관광에 정신이 빠진 청장년들 신을 알고 하늘 두려워하여 인과법칙 무서운 줄을 알지 못한다. 신, 인 조화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니 실천은 고사하고 생각조차 갖지않는 실로 삶의 행방을 망실한 것이 오늘의 사회 양상이다.

모든 국민이 옛날처럼 인간 개인이나 국가사회의 운명과 운도(運度)가 신명에게 매어 있어서 운도, 운수 소관이라는 비과학적 미신은 오늘에 있을 수 없지마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자연과학의 망원경이나 현미경적 인식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천견(淺見) 우견(愚見)이다.

인간에게 내재(內在)한 신명의 관(觀)으로 보는 정신과학(精神科學)이 신인조화의 종지로서 정립(定立)되어 조(調)와 화(化)의 정신 속에서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이 함께 작용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국가적인 정신운동이 실시되고 정신교육이 실천되어 태극기를 앞세우고 태극의 음양합덕과 그에 이어 신인조화의 기치 아래 신인(神人) 황조(皇祖) 단군(檀君)의 후예답게 국가를 이루어 생활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 다른 무슨 과제보다도 가장 근본이 되는 명제요 과업이다.

육체만 있고 넋이 빠진 인간들, 현실은 있되 이상이 없고 과학적 기계문명만 발달하고 5천년 연면한 정신문화의 명맥이 끊어진 오늘의 국가 사회를 신인조화의 민주공화국, 문화공화국으로 만들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 3. 신인조화의 정체성 확립

이제 이 조화의 장(調化章)에서 남은 과제는 결론적인 신인조화의 바른 버리(綱)를 찾아서 그 정체성(正體性)을 확립하자는데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위에서 전제적인 여러 가지 논의를 종합하여 귀납적(歸納的)으로 정리하여야 할 것인 바 다소 서전(敘前)의 논의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미리 관용을 바라는 바이다.

### 1) 조화의 대상

신인조화의 대상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신명(神)과 인간(人)이다. 그 인간이란 개인에게서 비롯해서 한가족, 한동네, 나아가서 국가전체 더 뻗어서 세계인류 전체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관점에서의 이론이며 대상인 신명은 다음과 같이 유별(類別)할 수 있다.

#### ① 양위상제

광의적으로 신명이라고 하면 먼저 손꼽을 것이지마는 양위상제는 대순사상으로 보아서 신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신인조화의 대상으로는 하지 않는다.

#### ② 자연현상의 신들

천·지·일·월·성·신·5방·24절후·28성수·바람·비·우뢰·번개·산·바다·강등 나무 하나 풀 한잎까지에 신이 없는 것이 없다고 전경은 교시하고 있다.

#### ③ 정신사상(事象)에서의 신

전경에 나와 있는 문명신, 무신(武神) 원신(冤神) 상계신(上計神) 중계신(中計神) 하계신(下計神) 악신(惡神) 역신(逆神) 도통신 문명신 등

#### ④ 인간이 죽어서 된 신

조상신 선령신(先靈神)

#### ⑤ 역사상 인물의 신

최수운, 관운장, 갈공(제갈공명), 전명숙(봉준), 진묵, 주회암, 이마두

#### ⑥ 그밖의 잡신, 잡귀(雜鬼)

이매망량(魑魅魍魎) 사신(死神) 예고신 예팡신 아표신 척신

#### ⑦ 인간 내재(內在)의 신

선신 성신 원신 통정신 등<sup>48)</sup>

이렇게 많은 신명들이 인간이 조화할 대상이니 이들과 함께 조화(調和)함으로서 자연계와 정신계의 조화(造化)를 이룰 수 있고 신인간의 조화를 이

48) 모든 신의 명칭은 전경에 준거한다

를 수 있으니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이룩하는 원동력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 2) 조화의 기능

조와 화, 그것이 바로 합덕(合德)의 기점에서 출발했다고 볼 때 그 조화의 기능과 그러한 기능으로서 성취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인류문화가 발달했다고 하지마는 그 이면(裏面)을 관찰할 때 실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화려한 주택과 편리한 세간 휘황찬란한 입성에 산해진미의 먹거리를 즐기면서 비행기로서의 관광여행 자가용 타고 레저를 즐기면 인생은 그뿐인 것 같지만 이것으로 인류문화를 완성했다고는 할 수 없다.

발달한 기기(器機) 속에서 인간의 지식이란 숫자와 기호가 주종(主宗)을 이루게 되고 예의 염치는 배품을 드러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만인 주시하에서 남녀간에 입맞추고 껴안는 것이 예사가 될 정도로 실추(失墜)되어 있다.

윤리나 도덕이니 하는 말은 기껏 서양의 모럴(moral)이란 말로 대치 될 정도가 되었다곤 해도 동해안 해수욕장에 버려진 쓰레기더미(그것도 파묻어서 눈가림까지 하는)를 TV화면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은 독립될 자격이 미비한 국민으로 구성된 도덕의 저질국가라고 생각되었다.

그 위에 본능적인 식욕과 성욕에만 마음이 쏠리는 정신의 후퇴는 바로 야만 원신시대로 뒷걸음을 치고 있으니 옛글에 인간이 글을 배우지 않으면 ‘우마이금거(牛馬而襟裾<sup>49</sup>)=마소에게 옷을 입힘)라고 한 그대로 사람의 얼굴에 금수의 마음 [人面獸心] 의 인비인(人非人=사람같이 생겼으며 사람이 아닌 동물)이 오늘의 인간들이다.

다음은 신인조화가 기능을 발휘하는 그 공효가 20세기말의 오늘 뿐 아니라 21세기 내일에까지 꼭긴(喫緊)하게 필요한 사상인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49) 고문진보에 있는 당음 [唐詩]

### 3) 신명의 정체성 인식

신인조화로서 신명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을 바꾸어서 신명의 정체성을 인식함으로써 신인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 더 알기 쉬울 것이다. 하기는 이 두가지의 말이 문법적 논리로는 그 성격이 다르게도 비취질 것이지만 그 바탕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명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을 알아야 할 필요성때문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경에서 신명관계의 몇구절을 찾아 적기(摘記)한다.

상제께서 모든 천지공사에 신명을 모으고 흠어지게 하는 일과 영을 듣는 일에 무리들을 참관케 하고<sup>50)</sup>

이 한 구절로 먼저 상제 곧 증산은 모든 신명을 마음대로 구사(驅使)하는 그러한 천지공사의 역군(役軍)이 되는 것이 인간이 지닌 신성(神性)의 임무도 될 것인 바 이것이 신인조화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로서 양위상제는 신인조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전경 가운데서 살피면

...3월 어느날 가라사대 지금은 신명 해원시대니라<sup>51)</sup>

하시고 시천주(侍天主)를 얻은 최수운과 태을주(太乙呪)를 얻은 김경흔(金京訥)을 거론하며 누구를 해원할까하면서 시천주는 이미 행세하고 있으니 태을주를 쓰겠다고 하여 그것으로 김경흔의 한을 푼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명시대의 신명이 바로 고인(故人)이 된 두사람이란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중천신이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이로부터 중천신에게 복을 주어 원한을 없게 하려하노라<sup>52)</sup>

50) 전경 교운 1장 8절

51) 전경 교운 1장 20절

52) 전경 공사 1장 29절



이것을 보아서 모든 신명의 원을 풀어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상제의 이상이니 인간과의 조화도 이에 주안점(主眼點)을 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선신(善神), 문명신과 같은 신명은 받드는 의미에서 조화해야 하고 원신(怨神), 아포신(餓飢神)과 같은 신명은 그 원함과 굶주림을 생각해서 조화되 살아서 한을 풀지 못한 선령신(先靈神)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 4) 인간의 정체성 확립

위에서 한 말들이 중복될 수 밖에는 없지마는 오늘의 인간이 인존시대의 인간임을 다시 인식하지 않으면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의 진정한 값어치를 스스로 깨달으면 [自覺] 그것이 곧 부처가 되고 신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각종교에 통용되지만 따져보면 이것은 심신의 수련(修鍊)을 권장하는 말이다.

그것은 기실(其實) 따져보면 인간자체에 신이 (또는 불(佛)이라고 해도 좋고) 내재(內在)해 있는 것을 모두는 알지 못하고 있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사실 뿐이니 거기에 수행, 수련이 따라야 한다.

또 이런 말도 부질없는 것은 신이 내재하고 외재하고 하는 것도 문자로서의 표현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근본 신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명동일인(異名同一人)이라기보다 바로 한사람의 이름(名)과 자(字)와 같은 표현일 뿐이다.

그러니 한마디로 하자면 인간의 세계가 곧 신의 세계며 인간이 곧 낙원의 선경(仙境)세계를 이룩할 수 있으며 또 지옥세계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낙원세계로 만드는 것에는 신명인 인간의 힘과 함께 유계(幽界)인 신계(神界)에 있는 신들과 힘을 조화하여 이 지계(地界)뿐 아닌 3극 3재인 3계가 모두 낙원선경이 되게 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5) 신인조화의 정체성

본 논고의 서두에서도 말했지마는 인간이 인간의 현실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정신문제까지 논하고 나아가서는 형이상적이라

기보다 현대의 자연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신명의 문제까지 논의한다는 것이 힘에 겨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대순사상의 독특한 교의인 신인조화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또한 현실적이 아닌 정신적 차원의 문제는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각인각양의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나의 주장만이 정확한 해답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각지역마다 또 각종교마다 개인마다의 관념과 인식을 적부적(適不適)하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돌이켜 생각하면 그럴수록 가장 정확한 개념의 그 정체성을 밝히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므로 이제 신인조화의 가장 합리적인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대순사상에서는 그 전경부터가 가위 장, 절마다에 신명, 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온갖 신명의 이름이 등장하며 종지에까지 신인조화라고 뜻을 박아 있으므로 더욱 그러한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이 신인조화의 가장 극명한 해의(解義)를 전경에 있는 음양경 본문에서 찾아 본다. 이 음양경은 대순진리회의 도주(道主)며 옥황상제로 모시는 조정산(趙鼎山)이 서기 1925년(을축)에 무극대도의 종지, 신조등을 선포하여 창도하고 1928년(무진)에 다시 포유문 경문과 9개의 주문(呪文)을 선포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음양경 가운데 한절인 바 음양조화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근본교의를 간명 적절하게 교시한 것이다.

神無人後無托而所依 人無神前無而所依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神明媿人 人媿神明 陰陽相合 神人相通 然後 天道成而地道成 神事成而人  
事成……

(신명이 인간의 뒤에 없으면 의탁해 의지할 바가 없고 인간이 신명의 앞에 없으면 이끌려 의지할 바가 없으니 신명과 인간이 조화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신명과 인간이 화합하여 온갖 활동이 이루어진다. 신명이 인간을 기다리고(함께하여) 인간이 신명을 기다리고 음과 양이 서로 합하고 신과 인이 서로 통하면 그런 후에 천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지도(地道)가 이루어지며 신명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사업이 이루어지리라)<sup>53)</sup>

53) 전경 교운 2장 41절 음양경

이 한구절이 지금까지 위에서 장황하게 해설한다고 한 것을 일목요연 정확 극명하게 결론지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것을 간추려 보면

- 인간의 뒤에 신명이 있고
- 신명의 앞에 인간이 있어야 한다.
- 신명은 인간에게 의지하고
- 인간은 신명의 인도를 받는다.
- 신인이 화(和)하여 모든 사물이 성취하고
- 신인이 합(合)하여 온갖 활동을 성취시킨다.
- 신은 인간을 기다려 인간은 신을 기다려야 하고(함께 함)
- 음과 양이 합하고 신과 인이 상통해야 한다.
- 이렇게 함으로써 천·지의 도(道)가 이루어지고
- 신명과 인간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우리가 유의하고 주목해야 할 몇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① 첫째 모든 일에 인간이 앞에 있고 신명은 뒤에 있다는 것이니 이것은 인간계는 양(陽)이고 신명계는 음이기 때문이다.

② 상대방을 의지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신명이라는 것, 인간이 주(主)가 되고 신명이 종(從)이 된다. 그 반면 신명은 인간을 뒤에서 밀어 주는 직역(職域)이 있는 것이 그 소임(所任)의 구별이 된다.

③ 먼저 신인간에 화(和)하여 화가 조화(調和) 조정(調整)의 뜻인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에 신·인이 합(合)해서 온갖 공사(工事) 또는 활동을 이룬다고

한 합이란 말이 화(化)와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으니 그 결과가 공(工) 곧 조화(造化)를 이룬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한말로 우리가 종지의 제2항인 신인조화의 조화(調化)를 조화(調和)와 조화(造化)의 뜻을 지닌 합성어(合成語)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연히 알수 있는 것이다.

④ 그리고 중요한 논의는 음과 양이 합하고(덕으로써) 신명과 인간이 서로 통해야 한다는 데서 신인조화가 먼저 음양합덕으로 이루어지는 음양양의 근본임을 교시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다.

⑤이렇게 하여 천·지와 신·인의 도(道)와 사(事)가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자신있게 극명히 포유(布喻)한 것이다.

이제 이 장(章)의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붙이면

신인조화의 정체성(正體性)은 ‘음양합덕의 기초 위에 성립하되 현실계에서는 인간이 앞선 위치에 있어도 정신계에서 숨은 신명의 음조(陰助)가 없어서는 되지 않는다.

신인조화가 있는 곳에 만사(萬事) 백공(百工)이 성취되니 이로써 천지의 대도(大道)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다.

## V. 신인조화의 21세기적 의의

### 1. 21세기와 신인조화

20세기가 이제 3년으로 끝나고 새세기인 21세기가 새로운 인류 백년의 꿈을 지니고 다가 온다.

지나간 백년의 한국과 세계는 모두 역사상 너무 큰 진통과 비운을 맛보고 또 그와는 반대로 자연과학과 기계문명의 발전 발달은 역사 있고 최고조에 달했으나 지나간 한세기만큼 굴곡 많은 시기도 없었다.

더구나 지난 한세기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적으로만 대립된 것이 아니라, 그 사상 때문에 국가대 국가뿐이 아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양대 블록이 대립되어 대순사상으로 보면 음양이 불합하고 부조(不調)한 상

태를 연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의 석양이 가까워지면서 공산진영의 총본산격인 종주국 소비에트연맹을 위시하여 오산(誤算)된 사상과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여 이제는 한반도의 북부지역과 남미의 쿠바 양개국 이외는 비록 공산국가라고 해도 시장경제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적인 경향으로 전이(轉移)하고 있어 새로운 세기를 맞는 준비는 이루어진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가 새세기와 함께 이상적인 낙토(樂土)가 되느냐고 하면 그게 그렇질 못하는데서 이러한 논의의 연구가 더 계속되지 않고는 안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류 공존공영의 고매한 이상이나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희망이나 또 기계문명 속에서 부도덕 비윤리한 도덕성, 인간성의 회복등 무수한 고차원의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지도자는 세계를 자국(自國)의 경제식민지화하고 문화수출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냉전적 경쟁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이고 신성(神性)적인 과제는 정치, 경제, 체육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 그 가운데도 음양합덕과 신인조화를 표방하는 대순사상의 몫아치가 될 수밖에 없다.

종교 가운데도 무슨 유희불의 심판이니 운운하는 교의도 있고 거기에 한시적(限時的) 이질적 교의 같은 미신 사도적인 것이 있어서 세상을 더욱 혼란케 하고 있는데 도(道)의 관점에서 보면 유치한 우화일 뿐이다.

이러한 21세기 새세기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도탄(塗炭) 가운데의 인류를 구제해 줄 사상이 대순사상뿐이며 그 종지인 음양합덕과 신인조화에 있다고 보는 신념(信念)이 21세기에 절실히 소용되는 것이다.

종교신앙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경우 꼭 대순의 신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일찍이 증산이 말한 바와 같이 모든 문화의 진액을 뽑아서 새로운 문화를 수립하며 새생활을 전개한다는 의미에서 음양합덕과 신인조화의 가르침에 귀의(歸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할 뿐이다.

일찍이 로마사람들이 말한

LVX ET ORIENT(빛은 동방에서)

란 말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금언(金言)이다. 이말은 해가 동쪽에서 떠오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세계의 혼미와 흑암(黑闇)을 걷어내어 인류를 광명으로 구제할 정신적인 힘, 그 능력이 동방에서 올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구인들의 지각이 있는 이들은 일찍부터 자기네가 전쟁은 잘 치르고 물건은 잘 만들고 하여(그림과 조각, 무용과 연극, 심지어 문학과 음악 같은 것도 현실적이며, 또 도덕적인 것이 있어도 심오한 심령적 신비로운 곳에 입각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기계문명과 인문문화는 발전시켰지만 인간의 심성(心性)을 대상으로 하고 우주의 공도(公道)를 밝히는 정신문화의 결함을 자인하고 있다.

그들이 태극양양의 음양이 합덕하는 원리를 알고 신인이 조화해야 하는 생활방법을 알고 실천했다고 하면 세계 인류의 하나하나가 바르고 용기있고 또 희망 속에서 물질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상의 안심입명을 얻어 인간다운 - 인간신다운 인간으로 세계를 평화로운 선경낙원을 이룩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더구나 다가오는 21세기는 체육경기등의 경쟁이나 경제발전의 우세만 가지고 국제간의 선진국이라고는 못할 것이고 도덕윤리와 종교문화로서 자부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우선 다음 21세기의 첫단계는 학술, 예술등 문화의 선진화가 진짜(眞者) 선진국이 되겠지만 마지막 단계의 진짜진짜 선진국은 종교, 윤리, 도덕이 오늘의 과학기술만큼 발달하고 또 보변화 한 국가 민족이라고 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그것이 한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적인 토대 위에 21세기가 건설되어야만 장구할 것이지 그렇지 못할 때는 옛날의 로마제국이 승리와 풍요 속에 자멸한 역사의 전철(前轍)을 되풀이 하고 말것이 자명하다. 그러기에 동양사상 가운데서도 근본이 되며 인물 가운데서도 가장 신성(神性)적 차원이 높았던 양위상제, 그분들이 가르친 음양합덕, 신인조화의 이념이 21세기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해 둔다.

## 2. 한민족의 사상적 기준

21세기의 세계를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나서 살고 있는 한국을 생각해야 하고 나개인보다 우리 전체인 민족을 생각해야 한다.

사실 뒤돌아보면 오늘의 한반도 전체의 인구는 7천만에 가까운데 2천 2백년에는 1억이 될 것이라고 하니 인구로서도 세계의 대국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국토가 협소하여 다음 세기에는 20세기보다도 더 많은 비례의 인구가 남북·미주나 대양주, 아프리카 같은 곳에 이주하여 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장차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세계의 지도국이 될 수 있는 동시에 문화적으로는 5천년의 저력있는 지도국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넉넉히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에 이것이 한국사상이요 한국의 문화라고 내어 놓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건국사 설화에 따른 이념이 있으니 그것은 모두가 늘 입에 회자(膾炙)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것이다.

이 한마디 말 속에 정신적 육체적 이상적 현실적인 온갖 이익을 세계사람과 함께 하자는 대이상이 깃들어 있다. 그러나 근본되는 우주와 인류의 생성발전과 윤리도덕 그리고 미래의 이상과 인간이 실천방안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홍익인간의 이념도 비로소 대순사상의 종지 교의를 만나서야 완벽을 기할 수 있으니 그것이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 바로 그것이다.

그 가운데도 신인조화에 이르러서는 고기(古記)에 나타난 한국의 건국설화에 근원적으로 신과 인, 또는 신인(神人)과 부족이 항시 조화(調和) 조화(造化)가 되어 발전한 것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우리국가 그 자체가 신인조화로서 발생한 것을 고기(古記) 사서(史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吾桓建國 最高有一神 在斯白力之天 爲獨化之神……桓因亦以監群居于天界……後桓雄氏 繼興奉天神之詔 降於白山……後神人王儉 降至于不咸之山 檀木之墟……54)

(우리 환(한) 나라를 세움에 가장 높으신 한분의 신이 백력천(白力天)

계시면서 홀로 조화의 신이 되어……환인이 또한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무리를 다스리시고……후에 환웅이 천신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이어 흥하게 하시려고 백산에 내리시니……또 후에 신인 왕검(王儉)이 불함산(백두산) 박달나무 있는 땅에 내려 오시어……)

夫三神一體之道 在大丹一之義 造化之神 降位我性 教化之神 降爲我命 治化之神 降位我精 故惟人爲最貴最尊於萬物者也 神本於性 而性末是神也 氣之炯炯不昧者 乃眞性也<sup>54)</sup>

(대저 세검한몸의 도가 크게 둥근 한의 진리에 있어 조화의 신이 내 성품에 내리시고 교화의 신이 내 생명에 내리시고 치화의 신내 정기에 내리시었으므로 오로지 사람이 만물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귀한 것이다. 신(神)의 근본이 성품에 있지만 성품은 아직 신이 아니다. 기(氣)가 형형하게 밝아서 어둡지 않은 것이 참 성품이다.)

환단고기(桓檀古記)에서 인용한 말인데 신인조화의 종지와 많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과 우리민족에게 예부터 신인조화적 사고가 있어 그 기본 위에 우리 민족이 성립된 것 또 생존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훌륭한 교훈의 글이라고 생각한다.

앞의 글의 골자를 간추려 보면

- 우리나라의 건국기원의 시조 환인은 백력천(白力天)에 계시던 최고신으로서 독화신(獨化身)환인이 되었다.
- 환인이 천계에서 무리를 다스리다.
- 환웅이 천신의 명을 이어 백산에 내리셨다.
- 신인(神人) 왕검이 불함산 신단수(神檀樹) 아래 내리셨다.

※ 백산과 불함산은 다 백두산을 이른다.

또 다음 글의 뜻은

- 세검한몸 곧 삼신일체의 도리는 둥글게 하나되는 뜻을 지닌다.
- 그 3신은 조화·교화·치화의 신인데 인간의 성·명·기(性命氣)에 내리어 인간에게 신성(神性)을 부여한다.
- 우리 속에 신이 있지만 오직 어둡지 않은 사람만이 참 성품 곧 신성(神性)이 작용한다.

54) 환단고기 삼성기전 상편

55) 환단고기 단군세기 序



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환인·환웅·단군에 대한 사실(史實)로 성립된 대종교(大倣敎)를 위시한 단군계의 종교가 있지만 우리 한민족 모두가 단군종교의 신앙여부는 자유더라도 국조로서의 존송감은 지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둔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신인조화의 독특한 몇가지 이론을 추출할 수 있으니 백력천 하늘의 최고유일신이 독화신으로 인이 되고 다음 환웅과 단군이 각각 그 명을 받들어 인간세계에 출현하는 과정이 최고신에서 독화신, 독화신에서 신인(神人)으로 조화, 교화, 치화하는 것이 바로 신인조화의 단계적 과정(process)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단국사상과 대순사상의 비교연구로서 별도의 논고를 초해 볼 생각이다.

아무튼 우리민족은 민족의 형성, 개천건국의 시초부터 신인조화의 이념과 이상과 그리고 그 과정으로 이루어졌다고도 넉넉히 말할 수 있으니 그것은 한민족의 사상적 기초가 신인조화에 있다는 것이다.

### 3. 인류 정신문화의 기초

오늘의 지구인류는 참으로 기형적인 존재가 되어 있다. 머리 속이 텅 빈 로봇이나 고무인형이든지 다만 과학기계의 한 부품처럼 되어 버린 것이 20세기말의 인간상이다.

이렇게 기계화한 인간이 있느냐 하면 이성과 지성 심지어는 인간성까지 송두리째 상실하고 본능으로만 살고 있는 인간도 있다.

이렇게 동물화한 인간들이 전대미문의 범죄를 자행(恣行)하며 먹고 노는 것으로 행복이라고 해서 술과 노름과 여자에만 열을 올리는 인간들이 있다.

이런 현상에서 우리는 다가오는 21세기의 지구야 말로 사람같은 사람, 바로 사람이 사는 세계가 되기를 희원(希願)하는 바 거듭 생각해봐도 대순사상의 종지 4강목(綱目)밖에는 인류구제의 처방이 없다고 생각한다.

현무경(玄武經)에서 증산은 병증(病症)과 그 처방을 설한 말씀이 있는데 본논문집 제2집에 안(安鍾沔)교수의 그에 대한 광범위하고 또 세밀한 연구

논문이 있기에 많은 말을 피하고 다만 한마디 경문을 발췌 하면 이러하다.<sup>56)</sup>

① 병의 형태

病有大勢 (병에는 큰 증세가 있고

病有小勢 적은 증세가 있다.)

② 병의 원인

大病出於無道 (큰 병은 도가 없어서 생기고

小病出於無道 적은 병도 도가 없어서 생긴다.)

원인을 의통(醫統)적으로 구명하면

忘其父者無道 (그 아버지를 잊은 자가 무도하고

忘其君者無道 그 임금을 잊은 자가 무도하고

忘其師者無道 그 스승을 잊은 자가 무도하다)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 天下皆病

(세상에 충성이 없고 효도가 없고 열의(烈義)가 없기 때문에 천하가 모두 병들었다)

③ 치유방법

大病之藥 安心安身 (큰 병의 약은 안심 안신이오

小病之藥 四物湯<sup>57)</sup> 적은 병의 약은 사물탕이다)

得其有道 則大病勿藥自效 (그 도를 얻으면 큰병이 약을 쓰지않아도 절로 낫는다)

④ 양생방법

大仁大義無病 (큰 인의(仁義)에는 병이 없다)

知天下之勢者 有天下之生氣 (천하의 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천하의 생기가 있고)

暗天下之勢者 有天下之死氣 (천하의 대세에 어두운 자는 천하의 사기(死氣=죽는 기상)가 있다.<sup>58)</sup>

56) 전경 행록 5장 38절

57) 四物湯 함용하는 보약(동의보감 소재)

58) 전경 행록 5장 38절

위에서 현무경을 인용 발취(拔萃)한 대로 증산은 세상의 병이 군·사·부(君師父)에 대한 도(道)가 없는 것에 기인한다는 것이니 그것은 곧 임금(오늘의 국가)에게 대한 충성, 아버지에게 대한 효도, 스승에게 대한 열의(烈義)가 없는 것에 기인한다.

그래서 큰병을 고치는 방법은 안심과 안신이고 군사부에게 대한 도(道)를 찾아 얻으면 약을 쓰지 않아도 병이 절로 낫는다.(得其有道則大病勿藥自效)<sup>59)</sup>고 가르친 것이다.

오늘의 지구세계의 인류가 치르고 있는 대병의 치유는 무도(無道)에서 유도(有道)로의 전환인데 21세기를 인류의 한 전환기로 보는 관점에서 이제는 어떤 한때 유행하는 주의나 사상에서 새로운 지로(指路)를 찾는 것은 여성의 복장유행이나 연예계의 대중가요같은 거품적 존재라는 것을 알 것이다.

마치 러시아를 종주(宗主)로 해서 동유럽 일대를 위시해서 세계를 휩쓸던 공산주의 같은 사상이 그 실례가 되며 또 민주주의니 하는 아무런 체계도 없는 것을 무슨 종교적 신념처럼 휘두르고 있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미국의 학자들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구천상제인 증산이 말씀하신 '천하의 대세를 알면 천하의 기를 얻고 천하의 대세에 어두우면 죽는 기상이 있을 뿐'이라는 이 말씀이 교의화(敎義化)하고 이념화(理念化)한 문자가 바로 '신인조화'니 그것만이 인류 구원(久遠)의 진리가 된다.

그것은 위의 말씀 가운데 있는 생기(生氣) 사기(死氣)로 표현한 기(氣)라는 것이 곧 신(神)이란 말로 대체해도 좋은 것이니 그 기(氣)란 말이나 신이란 말이 이명동일체(異名同一體)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상용(常用)하는 문자중에서 신과 기를 같이 쓰는 신기(神氣)란 말이 있고 정기(精氣)라는 말이 정신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도 쓰이며 또 정신과 같은 뜻으로 기백(氣魄)이란 말도 있다.<sup>60)</sup>

59) 전경 행록 5장 38절

60) 동의보감에서 한방 화제(和劑=서양의학의 처방)법에 1. 신형(身形)을 기준하고 2. 精 3. 氣 4. 神의 항목으로 나뉘었다. 정기·정신·신기등이 각자 독립하면서도 둘이 합하고 셋이 합한 一體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근일 기학(氣學)이니 단학(丹學)이니하여 수련하는 이들이 있고 또 기(氣)의 이용으로 치병(治病)도 하고 신체의 방위는 물론 이험(異驗)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을 대순사상적 안목에서 보면 바로신인조화의교의 안에 있는 행동이랄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방면의 학문이나 수련은 오늘날 황금만능의 물신(物神)주의에 탐익(耽溺)한 시대상에서 새로운 신인조화적 운동의 맹동(萌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전경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보아 왔다.

천지에 신명이 가득 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마를 것이니라<sup>61)</sup>

한 것으로 우주의 삼라만상에 신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그 신이란 바로 생명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무생물인 담벼락 같은 것은 조작(造作) 조화(造化) 그 자체가 신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인간뿐 아니라 일초일목(一草一木) 들맹이 하나 물 한방울도 소중치 않은 것이 없고 또 제대로의 가치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니 21세기의 세계인은 인간의 가치관 뿐 아니라 천지만물 모든 존재에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할 때 오늘처럼 환경을 어지럽히고 인명과 생물에 대해 소홀한 생각이 시정될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근자에 와서 서구 사람들도 차츰 정신계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으니 그런 실례로서 피터 톰킨스(Peter Tomkins)와 크리스토퍼 버드(Christofer Bird)가 함께 지은 '식물의 정신세계'같은 책이 그 실례가 된다.

이 책이야 말로 증산의 위의 말씀을 증명하듯이 식물에 신이 있고 식물도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기뻐하고 슬퍼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인데 이것이 풀잎 하나라도 신이 있다는 증산의 말씀이 오늘에 다시금 빛을 발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책에서 인도와 그리스의고대부터 전해 오는 식물의 정신적 능력에 대한 논의와 논쟁을 소개 정리하고 세계 각지에서 행한 실험과 많은

61) 전경 교법 3장 2절

문헌에 의거해서 식물의 사고력과 지각을 극명하게 소개하여 오늘의 인간들에게 새로운 삶의 성찰을 유도하는 이색적인 내용이다.

뜨거운 물 속에 뿌리가 담긴 보리싹은 몸부림을 치며 비명을 지른다. 아름답다는 칭찬을 하면 난은 더 아름답게 자라고 보기싫단 말을 들은 자학을 일으켜 일찍 시든다.

줄참나무는 초부가 곁에 가면 부들부들 떨고 솟무는 토끼가 다가가면 검은 빛이 나타난다. 제비꽃은 바흐와 모차르트의 음악에 회색이 만면인데 주방의 야채들은 물에 삶겨질 자기 운명에 비명을 친다. 저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이며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면 제동무들과 함께 받아 들인다.

러시아(구 소련) 과학자의 실험인데 옥수수밭에서 한그루를 유리통에 따로 심어 두고 3주간이나 물은 주지 않았는데도 곁에 있는 다른 옥수수와 같이 싱싱하였다. 이것은 틀림없이 밭에 있는 옥수수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분을 보내 주었다고 할 수밖에는 없었다는 것이니 이 이웃사랑의 마음을 배워야 할 것이다.

식물을 기계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지하다. 식물은 예지와 영성(靈性)을 지닌 녹색의 현인(賢人)이다.<sup>62)</sup>

이것을 무슨 실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신이 있다고 갈파한 증산의 예지(叡智)적인 예지(豫知)에 감탄하는 동시에 이러한 고도의 지혜가 세계인류에게 보급되어 신인조화의 윤리적 실천을 행해야만 새로운 세기의 희망이 있을 것이다.

위에서도 말했듯 정신문화의 후진성을 지니고 자연과학의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로만 편중되어 자연의 신성을 모르고 오직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고 신은 하나뿐인데 인간은 모든 생물 무생물을 마음대로 살상하고사용하고 이용할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서구사상이 보편화하고 있다.

그러나 동양인은 산천초목 금수곤충 모두에게 정(精)이 있고 신(神)이 있다고 믿어서 산악은 정복의 대상이 아닌 숭경의 대상이며 초목도 늘어지면 신목(神木)으로 해서 숭배의 대상인 관념을 지녔고 가축은 가족처럼 여기고 어벌에게도 방생하는 자비심으로 대하던 것이었다.

그것이 서구사조와 함께 산하는 파손오염 당하고 그래서 인간생활에 이용

62) Peter Tomkins & Christofer Bird 정신세계사(번역) 식물의 세계

만 하고 초목은 토목공사나 건축에 이용하고 화훼는 축전과 제전에 사용하는 장식품으로 금수와 채소는 영양을 섭취하는 식품으로만 간주하는 만행이 자행한다.

그것이 오늘의 인간에게 과급되어 인간성품의 야수화로 흉포하게 되어 살 부모(殺父母) 살처자(殺妻子) 자살(自殺)이 도처에 횡행하고 살인강도, 강간 살인 같은 흉악범이 속출하는 것이 이미 법률로 치죄(治罪)해도 되지않을 상태로 되어있다.

이것이 다만 한나라의 문제가 아닌 지구상의 공통된 현상이니 이제야 세계도의의 기본이 되는 구심점을 신인조화에 두지않으면 안된다. 신과 함께 하는 정치, 신과 함께 하는 경제 또 신과 함께 하는 문화를 이룩하지않은 인간의 잔재주로서는 인류의 이상인 세계평화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이 신인조화가 현대인에게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서구인에게는 더욱 이해하기 힘들기도 한 것이니 그들은 외계인이라든지 초인(超人)같은 육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해시키는데 힘이 들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인간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면 신성(神性) 또는 영성(靈性)과 인간의조화로써 이루는 진화라고 하는 해석이 이러한 이념의 세계인에게의 보급에 수용이 가능할 것 같다. 아무튼 이 신인조화의 사상이 세계 각국에 빨리 보급되어 정신적 원시인으로 퇴화해 가는 오늘의 세계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21세기야 말로 구천·옥황의 양위상제가 제시한 5만년 선경세계가 지상에 이룩되기를 희원(希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벽공사의 운도대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금물이니 성사는 인간에게 달렸다 [成事在人] 는 교훈에 따라 종교단체 지도자들의 인류교사적 활동이 더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해둔다.

## 맺 는 말

난해한 교의이 연구 그 자체도 어렵지만 그것을 일반인에게까지 이해 인식할 수 있게 기술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또 그것이 21세기를 맞는 오늘의 이 시점에 처한 인류들에게 무슨 공효를 가질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의욕 때문에도 나름대로 힘을 다했다. 그러나 줄고(拙稿)가 학술적으로는 부족감을 느끼며 일반도인에게는 무미건조한 것이 될 것 같아 더위와 함께 등골에 땀이 솟는다.

아무튼 대순사상 그 자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신인조화의 이념이 새로운 인식아래 오늘의 인간들, 오늘의 대한민국 나아가서 신세기를 맞는 지구세계 5양6주에 태양처럼 물살처럼 퍼져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본론 가운데도 누차 말한 것처럼 오늘의 세계인, 그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삶의 향방과 진로를 잃고 방황하는 정신적 미아가 되어있다.

높은 건물과 고속철도의 가설을 위시한(아직은 부실한대로 착공중이지만) 교통수단의 발달, 거기에 온갖 위락, 오락, 스포츠시설, 교육기관의 증설과 보건 후생사업의 확장, 증공업의 발달, 체육과 문화예술의 융성등이 눈부신 만화경을 이루어 증산이 전경에서 제시한 선경세계의 과정을 정시(呈示)하고 있는듯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신인이 조화한 이상세계가 아니라 신기루처럼 환상처럼 느껴지는 것은 20세기말의 무이상(無理想) 무목적(無目的)인 기계유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이 화합하고 물질과 정신이 화합한 신인조화의 세상이 될 때 증산·정산의 큰 포부와 이상이 실현될 것이며 인류 영원의 안식처가 이룩될 것이다.

대순사상의 오의(奧義) 그 가운데도 신인조화의 이념이 현대적 의의를 가지고 재등장할 때 사람들은 진리의 정도위에 도덕으로 무장한 정신세계의 역군이 되어 인생행로의 향방과 인생영위의 법방을 바르게 이행할 것이다.

내 속에 있는 정(精)과 신(神)과의 조화(調和) 또 밖에 있는 신명들과의 상호부조로 새로운 인간의 가치관과 세계적 진로를 바르게 설정하는 새세기가 되어야한다.

한반도의 남북 7천만은 물론 온세계인류가 신인조화의 새로운 의의를 인식하고 이 기당(旗幢)아래서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과 사회를 영위하기만 마음속으로 바랄 뿐이다.